

韩



观光旅游导读

国

史丽萍 ◎ 编著

 旅游教育出版社

D00737368



韩国 观 光 旅 游 导 读

责任编辑：李荣强 张立华 安太顺
封面设计：采风 书籍设计二



ISBN 978-7-5637-1888-7/K·268

定价：13.00元

ISBN 978-7-5637-1888-7



9 787563 718887 >

韩

观光旅游导读

国

史丽萍 ◎ 编著

 旅游教育出版社

责任编辑：李荣强 张立华 安太顺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观光旅游导读/史丽萍编著.—北京：旅游教育出版社，2009. 12

ISBN 978-7-5637-1888-7

I. 韩… II. 史… III. 旅游指南—韩国—汉语、朝鲜语
IV. K931.269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2009)第 196845 号

韩国观光旅游导读

史丽萍 编著

出版单位	旅游教育出版社
地 址	北京市朝阳区定福庄南里 1 号
邮 编	100024
发行电话	(010)65778403 65728372 65767462(传真)
本社网址	www.tepcb.com
E-mail	tepfx@163.com
印刷单位	河北省三河市灵山红旗印刷厂
经销单位	新华书店
开 本	850×1168 1/32
印 张	4
字 数	76 千字
版 次	2009 年 12 月第 1 版
印 次	2009 年 12 月第 1 次印刷
定 价	13.00 元

(图书如有装订差错请与发行部联系)

前言



我国与韩国自 1992 年建交后,在政治、经济、文化等各方面呈现出空前繁荣的交往态势。随着“韩流”热潮的风起云涌,韩国电影、电视剧、歌曲、餐饮等随行而至,前往韩国观光旅游的我国游客也逐渐增多。

本书囊括了韩国较为经典及深受我国游客欢迎的典型景点,并进行了深入介绍。为了更好地帮助读者学习韩国语,本书采用了中韩对照的写法。韩语爱好者可以通过韩文,同时配合中文进一步学习韩语;喜好去韩国旅游的读者则可以直接通过阅读中文部分达到了解韩国的目的。

本书共包括 10 章,除引言外,大体上是每章介绍韩国的一个“道”,由北至南,分别是京畿道、江原道、忠清北道、忠清南道、庆尚北道、全罗北道、庆尚南道、济州道。此外,由于首尔处于首都的地位,因此将其单列一章进行介绍。

本书在撰写和出版过程中得到了北京联合大学旅游学院教科部门以及旅游教育出版社的大力协助,同时也得到纪廷许、穆洁华、安太顺、袁晃等诸多老师的指点和支持,在此不一一列举,谨表示深深的感谢。

衷心希望这本韩国旅游指南能为中韩友好作出一点贡献,为读者的韩国之旅增加快乐。因为时间仓促,书中如有疏漏之处,恳请读者指正。

编者

2009.12

차례 目 录



들머리	1
제1 장 서울특별시	3
제2 장 경기도	17
제3 장 강원도	27
제4 장 충청북도	32
제5 장 충청남도	36
제6 장 경상북도	39
제7 장 경상남도	49
제8 장 전라북도	53
제9 장 전라남도	56
제10 장 제주도	59
부록(附录): 중문번역문(中文译文)	66
参考文献	119

들머리

중국의 이웃 나라인 한국은 아시아대륙 북동부에 남동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부에 위치해 있다. 크고 작은 섬 3200여 개가 있으며 북으로는 조선과 이웃해 있고, 남으로는 동해와 발해를 사이에 두고 각각 일본과 중국과 마주보고 있다. 한국의 국토면적은 9.96만 평방킬로미터이며 전 국토의 70%는 산지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한민족이 중심이 된 단일민족 국가였다. 총인구는 4,805만 명이 된다. 최근 외국인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다민족 국가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단일민족 국가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행정 구역은 1개의 특별시(서울 특별시), 6개의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8개의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도)로 나뉜다.

한국의 국어는 한국어다. 한국과 조선의 오랜 분단의 결과 언어의 이질화가 심화됐다. 그러나 단어의 의미, 용례, 새로운 용어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으로,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어 그 차이는 '방언'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방언은 보통 6개 구역으로 나뉜다. 동북방언(북한의 함경북도·함경남도·양강도), 서북방언

(북한의 평안북도·평안남도·황해도 북부지역), 경상북도·경상남도 및 그 주변지역 방언, 전라북도·전라남도방언, 제주도 방언,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강원도 및 황해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쓰는 방언 등 있다.

기후는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형으로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해 여름은 고온다습, 겨울은 한랭건조한 특징을 보인다. 여름에 가장 더운 시기는 6~8월 사이이며 8월 평균기온이 25.4℃로 될 수 있다. 삼면이 바다이므로 여름은 해양활동에 이상적인 계절이다. 해수욕 시즌은 7,8월이 가장 좋다. 겨울에 가장 추운 시기는 12~2월 사이로 북부의 평균기온은 -8℃, 남해안은 0℃이다. 겨울은 스포츠와 눈 관광의 좋은 시즌이다. 동부 산악지대는 적설량이 많아 곳곳에 눈썰매장, 스키장 등이 열린다. 스키 시즌은 12~2월이다. 봄은 3~5월이며, 9~11월은 가을로 되어 봄과 가을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야외활동에 이상적이다. 봄에는 비 오는 날이 가을보다 많다. 가을은 청명하고 날씨가 맑다. 봄과 가을은 스포츠 행사, 각 지역의 축제 등이 몰려 있는 계절이다.

음식과 문화면에서는 김치, 한복, 사물놀이, 탈춤 등은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되어 세계인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제1장

서울특별시

1 서울 개관



서울은 조선왕조 이후 약 600년간 한국의 수도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면서도 예술도시라고 할 수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유산이 풍부하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의 항공노선이 잘 연결되어 오늘날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약 90%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인구나 산업은 한국 최고를 자랑한다. 2008년까지의 통계로 인구가 1045만명이 되었고 한국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한다. 서울의 면적은 605km²이다.

관광명소중에서 시내에 있는 경복궁 등은 가장 인기 있는 곳이며 인사동과 이태원, 그리고 동대문 시장도 외국인이 많이 찾는 쇼핑 지역이다. 각종 문화공연과 야간 생활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적인 관심거리는 한국 종합전시장에서 거의 일년 내내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와 각종 이벤트도 많은 한국과 외국 방문객들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한 세계적인 호텔과 쇼핑시설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

외국 관광객들은 서울의 고궁, 이태원, 그리고 관문점과 용인 한국 민속촌을 즐겨 찾으며 인사동에서 한국의 고전 제품들을 쇼핑한다.

숙박시설은 종로 일대와 신촌 그리고 기차역, 공항, 터미널 부근에 집중되어 있다. 조용하고 깨끗한 숙소를 찾으려면 교통밀집 지역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 좋으며 잠실 지역의 올림픽 파크호텔과 양재동의 교육문화회관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머무를 수 있는 호텔이다.

2 주요관광지

(1) 경복궁

경복궁은 한국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조선왕조의 궁궐이다. 1392년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1394년 한양으로 도읍을 옮겨 그 이듬해에 창건한 조선의 정궁(正宮)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복궁 안에는 경희루, 향원정 등의 뛰어난 정자와 조선 최고의 권부를 상징하는 근정전 등 세련된 목석조 건축물이 있다.

경복궁의 터는 고려 때부터 풍수지리설에 따라 명당지로 지목되었다.

이조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궁궐을 완성한 뒤 신하들과 더불어 큰 잔치를 베풀고 신하로 하여금 새 궁궐의 이름을 짓도록 하였는데, 그 이름이 바로 경복궁이다. 1395년 경복궁이 완성된 후 크고 작은 화재가 있었으나 여러 임금을 거쳐오면서 수축과 증축이

되어 그 규모가 점점 커져 갔다. 그러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왜병과 난민의 방화로 불탄 후 폐허가 되어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1865년에 와서 재건되기 시작했다.

현재의 경복궁은 고종 때 재건된 궁궐의 모습이다.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은 터만 남아 여우와 이리가 출몰하고 풀만 무성한 채로 270여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이후 역대 왕들은 창덕궁에서 기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조 말에 이르러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은 왕가의 권위를 회복하고 왕족의 변영을 실현시킨다는 명분아래 경복궁 대공사에 착수했다.

대원군은 경복궁 대공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왕실의 종친과 부자들에게 기부금 형식의 원납전을 납부케 했으며, 원납전을 바칠 수 없는 각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자진 부역의 형식을 취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력 동원도 강행하였다. 이렇게 공사를 강행하던 중 뜻하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막대한 재목과 기타 물자가 타서 없어지자, 대원군은 날로 바닥이 드러나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울 4대문을 통과하는 사람과 우마차의 모든 물품에 통과세를 부과하여 징수하는가 하면, 혼인하는 자에게는 인두세를 납입토록 강요하였다.

또 고종 3년 1월에 대원군은 궁궐한 국비를 충당하기 위해 당백전을 만들어 강제로 유통시켰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겨우 경복궁을 준공한 때는 고종 5년이었는데, 공사가 시작된 이래 대략 40개월이 걸린 것이다.

근정전(勤政殿)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이며 1867년에 완성되었다. 임금의 즉위식이 거행되고 문무백관들이 조례와 공식적인 큰

행사에 참여하였다.

근정전 내부에는 임금이 앉았던 어좌(御坐)가 있고 그 뒤에는 5개의 산과 태양, 달을 그린 병풍을 세웠다. 근정전 천장에는 한 쌍의 황금용이 날고 있어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경회루(庆会楼)는 당초에는 중국사신에게 연회를 베풀기 위하여 건축한 것이었다. 당초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지금의 건물은 1867년에 다시 지어졌는데, 48개의 돌기둥 위에 2층으로 세운 누각으로 왕실과 신하 그리고 외국 사절들의 연회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향원정(香远亭)은 왕과 그 가족들이 여가를 즐겼던 공간이다. 경복궁 북쪽에 있는 아담한 연못과 정자가 어우러져 봄철의 개나리꽃을 배경으로 한국적인 정취가 빼어난 곳이다.

이 밖에 경복궁에는 임금이 평소 거처하며 정사를 돌보던 사정전(思政殿)이 있고 경천사지 20층석탑(국보 제 86호), 법천사지광국사 현묘탑 등 국보와 보물급 탑 약 20여개가 경복궁 내에 전시되어 있다.

경복궁의 평면은 남북이 긴 장방형으로 배치되었는데, 남쪽의 정문은 광화문, 동문은 건춘문, 서문은 영추문, 북문은 신무문이다. 이들 문의 이름을 보면 사신을 상징하고 있다. 광화문은 주작, 건춘문은 청룡, 영추문은 백호, 신무문은 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말마다 열린다.

국왕의 궁성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다는 의미로 ‘금내’ 혹은 ‘금궁’이라 명명하였고, 그 금궁 안에서 경비를 관장하고 대전을 호위하는 군대를 ‘금군’이라 하였다.

중앙의 궁성에 수문장청이 설치되어 있고 대전을 호위하는 군대 즉 금군이 궁성안을 호위한다. 조선 시대에는 궁성문 개폐 의식(궁성문 열고 닫음), 궁성문을 수위하는 궁성시위의식, 궁궐 내 순행의식 등 의식이 있다. 오늘날의 수문장 교대의식은 이러한 의식들을 연결시켜 재연한다.

덕수궁 석조전에 궁중의 생활문화를 보여주고 조선왕조 6백년 동안 역사를 낱낱이 보여주는 유물 8백여 점을 전시하고 있는 궁중유물전시관이 있는데 이곳은 꼭 들려야 하는 관광코스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덕수궁 수문장 교대의식

(3)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낱알이 그려진 역사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옛날에 종로구 세종로에 있었는데 2005년에 용산구 용산동로 이전해 개관하였으며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4만1천5백여평에 달한다. 조선시대 유물, 불교 관련 미술품, 삼국시대 유물 등 한국 문화유산 등이 전시되어 있는데 서울지하철4호선 이촌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최근에 가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전시된 고려 청자

(4) 청와대 · 무궁화

청와대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전 시내를 바라볼 수 있다. 과거에는 무술을 연마하는 연마장이나 과거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권력층의 비밀공간이었고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되었다.

(5) 종묘와 종묘제례악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비의 신위를 모시

고 제향을 올리는 사당으로서 1394년 조선왕조가 한양으로 천도한 그 해 착공되어 이듬해 9월에 완공되었다. 그 후 신위가 늘어남에 따라 수대의 왕조에 걸쳐 늘려 지었다. 원래는 지금의 정전을 종묘라 하고 세종 때 복속된 별묘를 영녕전이라 하여 구별하여 왔다. 오늘날에는 정전과 영녕전을 모두 합쳐 종묘라 통칭하고 있다. 정전에는 큰 공이 있는 임금의 위패를, 영녕전에는 그외의 임금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공신당에는 조선시대 공신 83위가 모셔져 있다. 종묘는 충효를 근본이념으로 했던 조선 왕조의 윤리, 도덕관을 오늘날에 전승하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이 곳에서 거행되는 종묘제례악은 무형문화재 제1호로서 조선왕가의 조상들에게 제를 올리는 의식이며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종묘제례: 조선시대 나라 제사는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로 나누는데, 종묘제례는 사직과 더불어 대사에 속하고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종묘의 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대제와 선달제사를 다하여 모두 5 향이었고, 영녕전에는 제향일을 따로 정해 봄, 가을 2 회로 제례를 지냈다. 그러나 광복 이후 한때 폐지되었다가 1971년 이후에는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제례를 올리고 있다.

종묘제례악: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음악이다. 여기 쓰이는 보태평과 정대업은 원래 세종이 친히 지은 것을 세조 때 줄여서 간략하게 하여 세조 1464년 처음으로 종묘제례악으로 채택된 것이다. 보태평은 역대 제왕의 문덕을, 정대업은 역대 제왕의 무공을 기리는 내용의 음악으로, 이에 조상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인 악정과 64 인이 서서 추는 팔일무가 함께 하여 웅대함과 장엄함을 더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도 매우 크러니와 한국 전통음악의 맥을 이어오는 유일하고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6) 창덕궁. 비원

창덕궁 비원은 1997 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창덕궁은 후원인 비원으로 더 유명하며 조선시대 지어졌으며 그 후 많은 재앙들을 겪었다. 그래도 현재 원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시대 궁궐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며 각양각색의 정자와 수만 그루의 수목, 화초가 심어져 있으며 인기 높은 최고의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가장 한국적인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극찬을 받고 있다.

하지만 1592 년 임진왜란으로 왜군이 한양을 침입하면서 대부분 궁이 불바다로 되어 버렸다. 그 중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은 불에 타버렸고 종묘만이 겨우 원모습을 잃지 않은 셈이다. 즉 오늘날 한양의 궁궐은 전부 타버려 흔적이 사라졌으며 남은 건 주요 전각과 인정전, 돈화문, 선정전, 대조전, 낙선재 등 건물이다.

조선시대 임금과 왕실은 창덕궁의 후원인 비원에서 휴식을 취하며 즐겼는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연못과 정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천년 묵은 아름드리 느티나무, 향나무 등 울창한 나무 숲과 한국의 고전 건축미를 자랑하는 영화당, 부용정, 어수문, 주



합루 등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비원은 자연 속에 인간이 깊숙이 동화되도록 만들어진 정원이다.

비원은 천연의 지형이나 경치의 아름다움을 개방적으로 살린 자연미의 극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복잡한 기교의 중국의 정원이나, 인공미로 감싸여진 일본식 정원에 비하여 자연주의를 잘 보존하고 있는 정원이다.

(7) 운현궁 · 왕비결혼식

운현궁은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의 거주하는 주택이었다. 운현궁에서 고종과 민비 명성황후가 결혼식을 올림으로 하여 유명하다. 고종과 명성황후가 혼례를 치른 노락당과 안채인 이로당, 사랑채인 노안당 등을 중심으로 하여 회랑과 경비로 등 부속물이 있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궁으로 격상되었으나, 대원군의 몰락과 일제의 점령으로 헌병대 등이 들어서면서부터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들어서 서울시가 대원군의 5대 손으로부터 매입해 운현궁을 복원하였으며 옛날 고종과 명성황후의 결혼식을 재연하면서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조선왕조의 국혼례 의식을 직접 볼 수 있으며 화려하고 멋있는 복식도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다.

매 주 토요일에는 국악 공연이 정기적으로 연출되면서 정기적으로 기획되는 궁중. 사대부 관련 의례, 물품전 등 볼거리를 가득 선사한다.

(8) 인사동

인사동은 골동품과 고대의 미술품이 풍부하여 외국인들에 인기

가 있으며 옛 문화를 자랑하고 있는 거리이다.

인사동은 80여년의 고미술품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서 옛 그림이나 도자기, 목기, 금속품 등 고대 미술품이 거래되며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조선시대 백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미술품을 구비하고 있다.

미술상가에 만원짜리 소품에서 수억원대의 귀중품까지 다양한 품종들을 팔고 있으며 고가구, 미술품 등 전문 고미술상들도 있다.

인사동의 장안평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장안평은 인사동 고미술거리이면서도 골동품상가의 2대 메카로, 고미술 상가라기 보다는 소품 전통 박물관이다. 상가 앞에는 신라의 토기, 고려의 청자, 조선시대의 청자, 백자도 있고 각종 고서적, 서철, 민화 등 고서류와 떡살, 다리미, 등잔, 촛대 등 생활용품, 비녀, 반지, 노리개 등 장신구 등 옛날에 자주 사용했던 물품들을 볼 수 있어 과거의 모습을 상상케 한다.

인사동은 주로 값이 바싼 고대 미술품을 판다면 이곳은 석물과 고가구 그리고 생활용품이 주를 이룬다. 가격은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지만 생각보다는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그 곳의 옛 등잔이나 항아리, 문짝 등이 요즘 들어 집안 장식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반달이와 돈케도 인기가 높아 사람들이 자주 찾는다.

장안평에서 감상용으로 도자기를 구입하려면 대개 백만원정도 줘야 살 수 있다. 그 밖에 5 만원짜리 고려 토기, 십만원에서 삼십만원 가까이 청백자 접시 등도 살 수 있다.



인사동 길가 점포

(9) 명동

서울의 전통적인 변화가이자 패션을 만들어내는 중심 상업지역이다. 명동상가에는 여성의류를 주로 판매하여 남녀 구두, 의류 등 모든 유행성 상품가게가 있으며, 중국대사관, 신세계, 롯데 등 대형 백화점과 조선포텔, 롯데호텔 등 특급호텔도 근거리에서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지역이다.

명동의 또 하나의 명소는 변화한 명동거리의 높은 언덕 위에 솟아 있는 명동성당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 성당이며, 한국 천주교의 본산이다. 박해와 탄압 속에서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한국 천주교는 1882년 한미수교를 계기로 신교의 자유가 이루어졌으며 1892년 문 아우구스티노 대주교에 의해 명동성당의 공사가 착수되어 1898년 5월에 축성됐다.

(10) 동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은 1905년 7월에 세워졌는데 ‘광장’이라는 또 하나의 명칭이 있었다. “광장”이란 광장주식회사(廣藏株式会社)가 경영하는 시장이란 뜻이었다. 몇십년간의 발전을 거쳐 32개 상가에 2만 8천개 점포가 들어섰던 동대문시장은 현재 연간 15조원 이상의 매출을 자랑하는 한국 최대 패션 시장이다. 시장에는 패션타운 두타와 밀리오레, 케레스타(구 청대문), 디자이너클럽, 누존 등과 함께 신평화시장, 남평화시장, 동화시장 등 재래 의류시장이 밀집해 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점포가 간판을 내리거나 새로 문을 여는 ‘유행과 패션의 전쟁터’이며 한국에서 유일한 패션 전문 상가다.

동대문시장은 종로 5가역부터 동대문 지하철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의류, 스포츠 용품, 가정 용품, 침구 등 다양한 물품을 취급한다. 이밖에도 책을 싸게 살 수 있는 책 도매시장과 문구류 도매시장, 스테인레스 그릇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시장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명실상부한 패션1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1) 남산·서울타워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남산공원은 순환도로와 산책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원의 곳곳에 야외음악당과 동물원, 선인장식물원 그리고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식물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공원으로 되었으며, 김구, 안중근, 정약용 등 한국의 여러 위인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여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정상에는 팔각정이 있

어 관광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남산 정상에는 서울타워라고 부르는 높은 탑이 있는데 방송중신 안테나와 전망대가 있는 곳이다. 고속 엘리베이터로 5층에 있는 회전전망대에 오르면 저녁에 서울 야경을 볼수 있어 그야말로 장관이다. 서울타워 지하에는 해양수족관이 있는데 500여종에 달하는 만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유자재로 놀고 있으며 50여 개의 수조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다.

서울타워는 해발 480m로 모스크바타워(537m)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버금간다. 남산 정상에서 서울을 한눈에 볼수 있는 곳이라면 서울 타워가 가장 손색이 없고 1980년 10월 15일부터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어 한국의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12) 이태원

이태원은 홀리데이 이태원호텔에서 시작하여 이태원 사거리까지 1.5km에 달하는 도로 변과 골목에 형성되어 있다. 즉 용산구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걸쳐 있는 셈이다.

옛날에 이 곳에서는 미군을 상대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점차 외국 관광객들에게 알려지면서 현재의 규모로 발전한 것이다.

의류와 가죽제품,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상가는 약 2,000여개에 달하며 뒷골목엔 유명브랜드의 시계에서부터 골프채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품이 진열되어 있다.

이태원에 가면 세계 각국의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데 국제관광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13) 63빌딩

1985년 4월에 준공된 대한 생명 63빌딩은 높이가 264m로 남산

보다 1m 낮으며, 한 장에 30 만원에 이르는 황금색 특수유리는 만 4천장에 달하여 유리값만 해도 40억원에 달한다.

이 건물의 안전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안전도가 특수공법으로 지반을 다져 초속 40km의 강풍과 진도 7의 지진을 만나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건물 끝부분은 좌우 30cm 까지 흔들릴 수 있는 철골로 설계되어 있어 화재 발생시 1,000도의 고온에서도 두세 시간 견딜수 있다.

또한 아이맥스 특수 영화관, 수족관, 쇼핑센터, 자무실 등 부대시설이 있으며, 60층 전망대에서 인천 앞바다, 잠실 올림픽타운 등 아름다운 풍경(반경 50km)을 내려다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의 눈을 만족시킨다.

(14)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은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최대의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다. 1988년에 서울음악당과 서울서예관, 1990년에 한가람미술관과 예술자료관 등을 차례로 열었던 적이 있다.

대극장은 음악, 서예, 미술에 대한 예술정보와 오페라, 연극, 무용, 뮤지컬 등 모든 장르의 무대 공연을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쾌적한 무대 시야는 세계 수준의 무대로 손색이 없다. 이런 예술공간외에 장터와 한국정원, 상징광장 등의 옥외 공간도 있다.

실외 공간에서는 여름 한철에 야외무대가 열리는데 실내 무대보다 야외무대를 더 선호하는 여름철에 야외무대를 선보이며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킨다. 그 곳은 클래식, 뮤지컬, 팝콘서트뿐만 아니라, 패션쇼,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공연물을 생동감 있게 펼칠 수 있는 공연예술의 요람이다.



제2장

경기도

주요 관광지

(1) 한국민속촌

외국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여기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대 서울인 한양의 옛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곳에 가면 전통 혼례행렬을 구경할 수 있는데 한국 전통 한복과 옛날 저고리를 입은 처녀도 있고 갓을 쓰고 긴 장죽을 입에 물며 표정이 근엄한 노인도 있으며, 사모관대를 하고 조랑말을 탄 신랑과 연지곤지 찍고 수줍은 표정으로 가마를 탄 신부 등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장간, 도자기 가마, 떡전 등도 옛 모습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그리고 야외 원형극장에서 즐겁게 진행되는 농악놀이, 화려한 차림을 선보이는 혼례행렬 등은 관광객을 민속축제를 만끽하게 한다.

그곳에 가면 옛장사가 옛관을 방문객에게 들이미는데 수백년전의 과거 속으로 들어간 방문객에게 환상의 날개를 펼치게 하며 그

옛을 먹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초가집 마당에 펼쳐진 평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앉아 한국 고유의 술인 막걸리와 동동주를 주고받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전통 주막을 즐겨 찾는다. 집안에는 주모가 빈대떡이며 파전이며 도토리묵이며 전통먹거리로 가득한 술상을 올리며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친구처럼 허물없이 대해주며 한국의 전통 주법대로 한 잔씩 주머니 받거니 하면서 지친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어느새 방문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거나하게 취기가 오르며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한국민속촌의 민속장에는 전통의 물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용인 민속장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장신구와 장식품 등 전통 민속공예품을 기념품으로 구입할 수 있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한국 고유의 음식을 한 곳에서 맛볼 수 있어 방문객들을 즐겁게 한다.

장터는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데 그곳에 앉아 인절미 등 떡도 맛보고 파전, 빈대떡, 도토리묵을 먹으며 동동주와 막걸리 등 전통주를 한 사발씩 마시면 기분을 한층 돋구어 주고 어느새 토속민이 된 기분이다.

또한 용인민속장에 가면 장가가는 사람만이 타는 조랑말도 얻어 탈 수 있고 신부만이 타는 꽃가마도 타고 직접 한국식 전통혼례식도 치러 볼수 있는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다.

한국 최대의 가족 오락단지인 용인 에버랜드가 한국 민속촌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또한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되어 있다.



줄 타기 공연

(2) 용인 에버랜드

한국의 대표적인 오락공원으로서 1976년 4월 자연농원으로 개장하였으며 2006년에 미국 포브스지에서 세계 4위 테마파크로 선정되어 세계적인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자연농원은 심어진 경제조림지를 비롯해 동물원, 식물원, 놀이동산, 미술관, 모터파크, 연수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각종 문화시설과 오락시설을 통해 모험정신과 용기를 키워 주는 놀이동산에는 40여 종의 놀이시설이 운영 중이며 “스카이 댄싱”, “오즈의 성” 등 다양하고 이색적인 놀이시설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한국 최초의 행잉코스터인 “독수리 요새”와 아마존 밀림 속의 가족형 급류타기 놀이인 “아마존 익스프레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후름라이드”, 간담을 서늘케 하는 “바이킹”, “환상

특급"등은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이다.

또한 에버랜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 행사가 있다. 바로 계절에 따른 꽃축제, 튜립축제를 시작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장미축제, 백합축제, 국화 큰잔치 등이다.

매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펼쳐지는 튜립축제는 120여 종, 150만 그루, 2백만 송이의 튜립꽃이 튜립원과 자연농원 곳곳에 심어져 이국적인 홀랜드 분위기를 연출하고 여기에 다채로운 행사가 곁들여져 분위기를 더욱 들뜨게 한다. 이어 펼쳐지는 장미축제는 11년의 막강한 전통을 자랑하는 행사로 빨강, 노랑, 흰 장미를 비롯한形形色색의 장미꽃으로 만여 평의 장미원을 아름답게 수놓아 함께 찾은 연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호랑이, 낙타, 코끼리 등 180여 종, 4천여 마리의 동물을 자연 그대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원의 "와일드 사파리"는 자연상태의 사자와 호랑이 등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은 사자와 호랑이가 함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용인 에버랜드는 전 단지를 테마별로 구분, 각종 놀이시설과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는 단지를 "패스티벌 월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놀이시설인 워터파크를 "캐리비안 베이"로, 한국 최대 규모의 자동차 경주시설인 모터파크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로 탈바꿈하여 세계 8위의 테마파크로 부상하였다.

(3) 호암 미술관

수려한 자연경관속에 세워진 호암 미술관은 한국미술품 1천 2백여 점을 바탕으로 1982년 4월 개관하였다. 경기도의 가장 많은 국보급 예술품은 호암 미술관에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금동보살입상, 금관 등은 그야말



로 경관을 이룬다.

이 미술관에는 국보급 미술품 1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기, 민화, 도자기, 고서화, 금속공예, 산수화 등 한국 미술사에 귀중한 자료들과 200여 명 작가의 엄선된 현대화 등 2만 5천 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근대 및 현대 미술품에 있어서도 한국 최대 규모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또한 로맹 등 한국과 외국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도 실외 조각공원에 설치되어 있다.

(4) 수원성

수원성은 1997년 세계화유산으로 등록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수원성은 팔달산을 중심으로 한 산성과 시내를 둘러싼 평산성으로 한국의 성 가운데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동서양을 망라하여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특징을 고루 갖춘 근대초기 군사 건축물의 뛰어난 모범이라 하여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극찬하고 있다.

수원성은 정조대왕이 아버지의 닳을 위로하고 부친의 유해를 양주 땅으로부터 옮겨오기 위하여 만든 성으로 1794~1796년에 축성되었으며 정조대왕의 효심을 알리는 성이다. 둘레가 5.4km인 수원성은 면밀한 설계를 기초로 벽돌과 석재를 적절히 혼합 사용하였으며, 지형적 여건을 잘 고려한 가장 근대적인 규모와 기능을 갖춘 우아하고 장엄하며 화려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다.

성곽에는 관문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고, 북쪽에는 장안문, 남쪽에는 팔달문, 서쪽에는 화서문, 동쪽에는 창룡문이 있다. 서장대, 화양루, 화홍문, 동장대 등은 군사를 훈련 시키는 시설물이다.

팔달문은 수원성의 남문으로 보물 제 402 이며 수원성을 축성할

때 건립되었고 4 대문에 속하며 장안문과 더불어 대표적인 성문이다. 석축으로 된 아치형의 홍예 위에 2 층으로 된 문루가 있는데 여장으로 둘러쌓여 있으며 석축 앞면에는 반원형의 외성과 같은 웅성이 구비되어 있고 좌우에 적대를 두었다.

화서문은 보물 제 403 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원성의 서문으로서 수원성 축성시에 건조되었다. 또한 동문인 창용문과 같은 형식의 제반 시설과 규모를 갖고 있다.

초소 구실을 담당하는 공심돈은 2 층으로 된 망루이다. 수원성에서만 볼 수 있는 망루는 계단을 밟으며 위로 올라가는데 각 층마다 총구, 대포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원성 내의 서포루, 서북각루, 방화수류정, 창용문, 연무대, 화홍문 등도 각각 자신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수원성은 자기만의 우수성과 특징을 갖고 있다.

수원성의 건축은 군사적 목적에 있다 하기보다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이 많고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도시의 기반시설인 문, 도로, 다리, 상가 등을 설치하였고 계획된 신도시를 건설하여 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와 둔전을 경영하고 있다.

수원성은 독특한 형태의 포곡식산성으로서 중국, 일본 등과는 달리 평지와 산지에 걸쳐 축조되어 있고 군사적 방어기능과 정치·상업적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곳이다.

수원성은 건축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수원성은 동서양 축성술이 집성된 당대 최고의 건축이다. 또한 18세기 동양의 성곽을 대표하는 한국적 건축의 완성품으로 축성의 계획, 제도 법식뿐만 아니라 인력의 인적 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공사일지 등이 '화성성역 의궤'에 완벽한 기록으로 남아 있다.



18세기 실학사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수원성은 자기만의 독특한 시설인 공심돈과 현안 등이 설치됨은 물론, 성곽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동양성곽의 백미라 할 수 있다.

고유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48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성곽 전체를 하나의 예술적 작품으로 보이게 하며, 화홍문은 수문의 기능과 7간의 수문 위에 축조된 문루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조화를 이루며 방화수류정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하여 관광객들을 황홀하게 만든다.

(5) 이천도자기축제

경기도 이천시에서 해마다 9월 또는 10월에 도예촌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근처에 있는 해강 도자기박물관과 이천 온천에 가서 하루를 즐길 수도 있다.

우수한 이천도자기를 전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이천도자기축제는 전통 가마 불지피기, 도자기제작 시연 등 도자기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 문화제는 경기도 이천의 지역 특산물인 도자기, 쌀, 온천을 소개하기로 유명하다.

15일간 열리는 이천도자기문화제는 이천 온천장의 야외 행사장과 해강 도자기미술관, 도예촌 일원의 9개 가마 등지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주요 행사에 전통 도공기원제, 전통 가마 불지피기, 이전 거북놀이 시연, 이천도자기전, 설봉산발굴 유물특별전 등의 전통 민속행사와 현대 무용단 퍼포먼스, 설봉음악제, 세계도예작가 워크숍, 이천도예가 작품전 등의 현대적 축하행사가 펼쳐지면서 조화를 이룬다.

첫째 날에는 개막식이 있는데 재미있는 공연이 벌어진다. 예를

들면 전통 도공기원제, 지신밟기, 현대무용단 퍼포먼스 등이 있다. 또한 전통 가마 불지피기 행사가 이어지는데 일반인이 거의 볼 기회가 없는 좋은 기회이며 행사기간 중 매일 1개요씩 제문낭독 등 제례행사를 하고 난 후에 진행된다.

그리고 특별 전시회도 준비되는데 이천도예가 작품전은 이천 50개 도자요의 대표작품을 한데 모아 전시하고, 선사시대 토기류에서 조선백자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잔을 모두 모은 전시회도 있다.

또한 축제기간 동안 다양한 민속행사가 펼쳐지는데 축제의 흥을 돋구어 주고, 도립예술단공연, 안동하회탈춤공연, 시립국악단공연, 이천문화예술단체공연, 농악놀이, 노래자랑, 도자기제작시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도자기 전시장



(6) 강화도

서울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강화도는 수많은 역사유물과 사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의 5대 섬 중 하나로서, 여러 차례 국난을 극복해낸 불요불굴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다.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 독일 구텐베르크, 22여 년을 앞선 금속활자, 고려자기의 백미인 상강청자 등은 강화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많아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운 고려의 유적지다.

오늘에 이르러 강화도는 국방의 요새로, 완초공예품인 화문석의 명산지로, 인삼생산지로, 그리고 국민안보관광지로 유명하다. 그리고 단군왕검이 한민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던 침성단이 마니산 정상에 자리잡고 있는데, 표고 486m의 이 마니산은 묘향산과 함께 단군왕검이 강림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불교 본산의 하나인 전등사는 또한 역사가 오래된 고찰이다.

강화도 곳곳에는 전적지가 모인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강화해협을 지키기 위해 축성된 덕진진을 비롯해서 신미양요(1871년) 당시 가장 격렬한 격전지였던 광성보, 신미양요 때 미국, 극동함대의 해병대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렸던 초지진, 옛 강화의 관문이며 강화해협을 지키던 중요한 요새인 갑곶돈대, 고려 고종이 몽고와의 항쟁에서 침략에 대항하여 축성한 강화성 등이 있다.

특히 고려 중엽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강화 화문석’은 다른 지방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순백색 왕골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는데, 이 지역의 관광 토산품으로 인기가 높다.

강화의 특산물에 '순무'가 있는데, 이 '순무'는 토양 관계상 강화와 개성지방에서만 나는 특산물이며 이 순무로 담근 김치나 각두기는 씹을 수록 시원하다고 한다.

그리고 강화지방의 특색인 '시래기밥', 국물 맛이 진미인 '가물락 조개탕', '메밀칼삭두기'라고도 불리는 강화의 토속음식인 '메밀떡국' 등은 이 지역의 유명한 음식으로 손색이 없다. 이러한 음식들은 강화 곳곳에 있는 음식점에서 맛볼 수 있다.



제3장

강원도

1 강원도개관

산과 바다 그리고 호수를 고루 갖춘 천하의 비경이 곳곳에 숨어 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와 억만년 신비를 간직한 석류동굴을 비롯해 국토 분단과 동족상잔의 아픔을 간직한 전쟁유적지 등이 있다. 강원도는 지형적 특성에 따라 이를 춘천권, 설악권·강릉, 태백권, 치악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독특한 관광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있으며, 각 권역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현재 춘천권은 호반의 특성을 살린 수상 위락중심 관광지로서 수도권권의 주말 휴양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주요 관광자원은 의암호, 소양호를 비롯한 춘천 인근의 호반과 구곡폭포, 등선폭포, 팔봉산 등이 있다.

설악권에서는 국립공원인 설악산을 중심으로 해수욕장과 스키장뿐만 아니라 통일전망대를 통해 조선의 금강산까지도 구경할 수 있다.

강릉·태백권은 해양관광과 대관령 그리고 태백산맥을 잇는 관광권이다. 경포, 망상 등 청정해역의 해수욕장과 더불어 대관령

의 스키와 골프 등 레저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주변에 오대산, 소금강, 동해 무릉계곡 등의 절경을 한데 묶어 함께 구경할 수 있다. 태백산과 인근의 영월과 정선도 빠질 수 없는 관광지이다.

치악권은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지이다. 치악산 주변의 구룡사, 간현국민관광지, 금대유원지, 설강유원지 등이 하나의 관광권역을 형성하도록 개발하고 있다.

2 주요관광지

(1) 설악산

남쪽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는 한국 제 1의 비경이다. 설악산(雪岳山)은 높이 1,708m로 한국에서는 한라산(1,950m)과 지리산(1,915m)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산이며,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에 이르러야 녹는다 하여 설악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또 '증보문헌비고'에서는 산마루에 오래도록 눈이 덮이고 암석이 눈같이 희다고 하여 설악이라 이름짓게 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 설산, 설봉산이라고도 불렀다.

설악산은 태백산맥 연봉 중 하나로, 최고봉인 대청봉과 그 북쪽의 마등령·비시령, 서쪽의 한계령에 이르는 능선을 설악산맥이라 하며 그 동해쪽을 외설악, 서쪽을내설악이라 한다.

중생대에 대규모의 화강암이 지상으로 융기하여 차별침식과 하천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 지금과 같은 기암괴석의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산밑에서 정상에 이르는 사이의 온도차



는 약 12℃ ~ 13℃에 이르고 동해안 산맥 때문에 지형성 강수량도 많은 편이다.

식생은 총 800여 종이있으며, 활엽수와 상록침엽수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다.

동물은 산양, 사향노루, 까막딱따구리, 반달곰과 같은 희귀동물을 포함하여 500여 종이 있다. 이 밖에도 백담사 계곡의 백담천에는 냉수성 희귀어족인 열목어와 버들치가 있다. 이러한 설악산 일대는 1965년 11월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 171호)으로 지정되어 많은 동식물들이 보존되고 있다. 또한 1982년에는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서쪽의 내설악은 깊은 계곡이 많고 수량이 풍부하여 설악에서도 가장 빼어난 경승지를 이룬다. 설악 제일의 절경이라고 하는 백담동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대청봉에서 백번째 되는 못에 지었다는 명찰 백담사에 다다른다.

동해쪽의 외설악은 천불동 계곡을 끼고 솟은 기암절벽이 웅장하다. 외설악입구에는 숙박시설 및 오락시설을 갖추고 있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가 있다.

설악동에서 신흥사를 거쳐 계조암에 이르면 그 앞에 흔들바위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사방이 절벽으로 된 높이 950m의 울산바위가 있다.

흔들바위는 외설악에 온 관광객이 거의 빼놓지 않고 찾아가는 바위로, 열사람이 밀거나 한 사람이 밀거나 똑같이 흔들린다.

천불동 계곡에는 신선이 누워서 경치를 감상했다는 와선대와 신선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란 비선대 그리고 세존봉 중에 있는 금강굴이 있다.

금강굴은 높이 800m의 가파른 곳에 있다. 비선대부터는 본격

적인 등산로로 귀면암, 오련폭포, 천당폭포 등을 지나 대청봉에 이르게 된다. 이밖에도 외설악에는 권금성, 봉화대, 산책로를 따라 오르는 육담폭포, 비룡폭포, 토양성폭포 등이 있다.

설악산에 있는 대표적인 사찰로는 내설악의 백담사와 외설악의 신흥사를 들 수 있다.

백담사는 신라때 지은 이후 작은 화재로 설악산 안의 여러 곳을 옮겨 다니다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신흥사는 신라때 세웠다가 조선 인조 때 소실된 사찰의 자리에 다시 창건한 절로, 층석탑(보물 제 443 호) 을 비롯하여 단청이 아름다운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경관, 청동시루, 석조계단 등 많은 문화재가 있다.

이밖에 설악산에는 봉정암, 계조암, 오세암, 비구니 암자인 내원암과 영시암이 있다.

불가에서는 이 산을 설산, 설봉산, 또는 설화산 등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석가가 수도하던 산이 설산이었음을 생각해 해준다. 옛 문헌에는 “중추가되면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녹음으로써 설악(雪岳)이라 한다”고 하였고 또 “돌이 눈같이 희므로 이름을 설악이라 한다”고 되어있기도 한다. 조선조 송강 정철은 설악산 봉정암을 찾아오르다가 산에서 소나기와 뇌성벽력으로 큰 고생을 하고는 “설악이 아니라 벼락이요, 구경이 아니라 고통(苦境)이며, 봉정이 아니라 난정(難頂)이다”라고 얘기했다. 이 이야기는 설악산 등반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흥미로운 일화로서 전해온다.

(2) 강릉단오제

매년 음력 5월 1일에 영신제가 있는데 이로부터 강릉 단오제가



시작된다. 강릉단오제는 양기의 숫자 5가 두 번 겹치는 음력 5월 5일 까지 시행한다. 실제로 음력 3월 20일에 신에게 바칠 술을 빚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 신맛이 제사는 이 곳에 모신 대관령 국사를 잔치가 벌어질 남대천가로 옮겨 모시는 절차로 국사 여성황당에서 올려진다.

영신제가 끝나면 등불행진이 벌어지는데 관노 가면놀이, 그네뛰기, 농악, 씨름, 활쏘기 등의 민속놀이와 단오굿, 시조·민요부르기, 다양한 체육행사 등이 단오제가 끝나는 음력 5월 6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진다.

그리고 단오제를 마감하는 행사 또한 특징적이다. 5월 6일에는 강릉 단오제를 마감하는 날인데 큰 성황당의 뒤뜰에서 소제가 있다. 이 때에는 단오제를 위해 만든 모든 물품들을 불태우며 그동안 여성황당에 모셨던 국사를 대관령 국사 성황당으로 다시 모셔간다. 이 봉송이 끝나면 거의 50일 간의 강릉 단오제는 끝을 맺게 되는 것이다.

강릉단오제는 오랜 역사의 과정을 거쳐 예술부분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단오굿과 관노 가면놀이이다. 특히 관노 가면놀이는 조선시대 때 이 곳 관아에서 벼슬아치들의 시중을 들며 온갖 귀한 일을 도맡아 했던 노비들의 탈놀이로, 대사가 한 마디도 없는 무언극으로서 예술성이 뛰어나다.

강릉 단오제에 주목되는 것은 무당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단오굿이다.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며 사람들이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단오굿은 강릉 단오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음력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제4장

충청북도

1 충청북도 개관

‘택리지’의 내용에는 “충청도는 사대부가 모여 살며 산천이 평평하고 아름다우며 서울에서 가까운 남쪽이다. 그리고 서울에 여러 대를 사는 집으로 이곳에 논밭과 집을 마련하여 생활의 근거지로 만들지 않은 집이 없다. 또 서울과 가까워서 풍속에 심한 차이가 없으므로 터를 고르면 가장 살 만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마 그래서 충청북도는 양반고장이라고 불리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청주와 충주는 충청북도에 포함하며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이로부터 청주 부근에는 서원문화권, 충주 부근에는 중원문화권을 형성해 왔다.

충청도는 예로부터 바람 맑고 달 밝은 고장으로 충효를 숭상하여 왔음으로 풍토를 한마디로 ‘청풍명월’이라 한다.

요새 청주 가까이에 자리잡고 있는 대청호에서는 속리산, 화양동, 충주호, 월악산, 소백산을 잇는 순환관광대가 형성되어 있다.

2 주요관광지

(1) 속리산 범주사

속리산 범주사는 신라 553년에 창건했고 사적 및 명승 제 4호이며 세계 최대의 청동미륵대불(본체 25m)과 팔상전 5층목탑(국보 제 55호)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쌍사자석등(국보 제 5호), 석연지(국보 제 64호)와 보물로 지정된 사천왕석등(보물 제 15호), 마애여래기상이 있고 주변경관이 뛰어나 사적 및 명승 제 4호로 지정되었으며 국보와 보물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다. 속리산은 흙넝쿨, 할미꽃, 모기가 없는 3무의 신성한 산이라 하여 이곳을 찾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사찰에 있는 거대한 “청동미륵대불”은 팔상전과 함께 대표적인 유물이 되고 있다. 범이 머문다고 하여 범주라 이름지어진 이 사찰은 어떻게 보면 미륵님이 머문다고해서 붙여진 명칭이기도 하다.

영원한 장래에 태어나실 부처님 미륵불, 인간의 수명이 84,000세로 연장되고 행복과 풍요로움과 평화가 가득 찬 세상에 나타나실 미래의 부처 미륵, 이 절에 모셔진 미륵불상은 이 곳이 그러한 이상 세계가 실현될 중심지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전설에 범주라는 절 이름은 신라 진흥왕 14년 의신조사가 인도에 가서 불법을 구하여 흰 나귀에 불경을 싣고 와서 머물고 절을 세웠기 때문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범주사 경내에 자리잡고 있는 팔상전(국보 제 55호)은

한국 유일의 목조 5층탑으로, 높이는 22.7 m이다. 벽의 사방에 각 면 2개씩 모두 8개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팔상전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 팔상전의 내부에는 중간 네 개의 높은 기둥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석가모니의 일생을 여덟 장면에 표현한 '팔상도'가 배치되어 있다.

청동미륵대불상은 팔상전 왼쪽에 자리잡고 있는데 8m 기단 위에 25m 높이이며 160톤의 청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라고 한다.

(2) 단양8경

단양군을 중심으로 주위 12km 내외에 있는 명승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선암은 남한강 상류에 위치하는 단양 남쪽 4km 지점인 단성면 대집리에 있으며, 심산유곡의 첫 경승지로서 불암이라 부르던 3층의 넓은 바위를 조선조때 선암이라 부른 뒤부터 하선암이라 개칭하였으며, 봄에는 철쭉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온산을 물들이며 절경을 이룬다.

중선암은 단양 남쪽 10km의 단성면 가산리에 있으며, 삼선구곡의 중심지이다. 흰색의 바위가 층층대를 이루고 있으며, 계곡류에서 쌍룡이 승천하였다 하여 쌍룡폭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상선암은 단양 남쪽 12km 지점의 가산리에 있으며, 중선암에서 약 2km 올라가면 수만장의 청단대석으로 된 암벽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반석 사이로 흐르는 계곡류와 폭포는 가히 절경을 이루고 있다.

구담봉은 단양 서쪽 8km 지점인 단성면 장회리에 있으며, 남한

강을 따라 깎아지르는 듯한 장엄한 기암괴석으로 그 형상이 마치 거북같다 하여 구룡이라고도 하였다.

옥순봉은 단양 서쪽 9km 지점의 장회리에 있으며 예로부터 소금강이라 불리운 곳이다. 우후죽순 같이 솟아오른 천연적 형색이 희다 하여 옥순봉이라 하였다.

도담삼봉은 단양북쪽 12km 지점의 단양읍 도담리에 있다. 남한강의 수면을 뚫고 솟은 세 봉우리 가운데 남봉은 첩봉 또는 팔봉이라 하고, 북봉은 처봉 또는 아들봉이라고 한다.

석문은 단양 북쪽 12km 지점의 도담삼봉하류에 있다. 남한강변에 높이 수십척의 돌기둥이 좌우로 마주보고 서 있는 위에 돌다리가 걸려있어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사인암은 단양 남쪽 8km 지점인 대강면 사인암리에 있으며 덕절산 줄기에 깎아지른 강변을 따라 치솟아 있다.

제5장

충청남도

1 충청남도 개관

삼한시대에 마한이라는 부족연맹사회가 위세를 떨치던 지역과 대체로 일치되는 지역이 충청남도이다.

여기서는 부여의 정림사지 5층석탑, 궁남지, 백제왕릉의 별서, 무량사 5층석탑, 공주의 송산리 고분, 무령왕릉과 그 부장품 등은 찬란했던 백제문화의 정수를 엿볼 수 있으며 관촉사, 은진미륵불, 칠백의총 등 볼거리가 있다.

대전광역시 근교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낙화암, 정림사지 5층탑과 공산성, 무령왕릉을 비롯하여 많은 백제 문화유적이 남아 있고 유성온천과 백제 수도였던 부여와 공주 등이 있다.

현재 대전은 대전 엑스포의 시설을 정리하여 과학공원으로 조성 운영하면서 과학발전의 요람지로 승승장구시킬 것이며 과학단지와의 함께 큰 역할을 하면서 과학교육의 현장으로 개방되기도 한다.

2 주요관광지

(1) 백제문화제

매년 10월중에 펼쳐지는 백제문화제는 한국 3대 문화제 중의 하나이다.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매년 부여시와 공주시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해마다 만여 명이 출연하는 이 문화제는 70여 개의 축하행사를 마련한다.

백제 대왕제를 비롯해 백제 말기 뛰어난 3 충신을 추모하는 삼충제, 5천 결사대를 이끌고 나당연합군과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당한 계백장군과 8 충신을 추모하는 팔충제, 백제 광복군을 추모하는 충혼제, 그리고 정절을 지키기 위해 낙화암에 뛰어내려 죽음을 택한 3 천궁녀를 추모하는 궁녀제 등이 대표적인 행사로 꼽힌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민속행사가 준비되는데 시조경창대회, 궁도대회, 농악경연, 백제왕비 및 공주선발대회, 장사씨름대회 등이 그것이다. 또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노래자랑대회가 있으며 연극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2) 정림사지 5층석탑

1962년 국보 제 9 호로 지정되었다. 흔히 백제 오층석탑이라고도 하여 찬란했던 백제문화를 증명해 주는 문화유적으로 유명하다.

한국의 대표적인 석탑양식으로 이름 날린 정림사지탑은 총 높

이가 8.33m 에 이르는데도 멀리에서 보면 그리 육중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다가갈 수록 장중하고 위엄있는 깊이가 느껴진다. 이것은 다른 탑에서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넓은 옥개석 때문이다. 옆으로 퍼진 얇은 옥개는 마치 두 손을 마음껏 펼친 춤추는 자세같고, 옥개석 끝의 전각부분만 약간 올린 반전(反轉)수법은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선의 예술, 그 중에서도 곡선의미를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정림사터는 충청남도 부여읍 동남리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5층석탑과 함께 보물 제 108 호로 지정된 고려 때의 석불 좌상이 남아 있다.

한편,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에 옛 백제 지역인 충청도와 전라북도 지방에 세워진 탑 가운데 많은 탑이 정림사지 5층석탑의 양식을 지니고 있다. 정림사지 5층석탑은 충청도·전라북도 지역의 전형적인 지주로 오랫동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제6장

경상북도

1 경북 개관

경상북도는 문화관광지역을 주로 북쪽의 안동, 동남쪽의 경주
으로 나눌 수 있다.

안동은 경상도 북부에 독특한 안동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바
조선시대 장기간 왕가의 외척으로 권세를 떨치던 곳이었다.

안동 하회에는 충효당, 양진당, 예안에는 도산서원 등이 있으
므로 하여 조선시대사대부의 가풍과 생활의 일단을 느낄 수 있다.
그밖에 회방사, 부석사, 소백산, 소수서원 등이 위치하고 있다.

동해안지역은 포항에서 북상하여 울진에 이르는 지역으로 불영
계곡, 성류굴 등의 명소와 백암 덕구온천 등을 포함한다.

경주는 형산강 상류의 분지에 자리잡고 있는데, 신라 천년의 고
도요, 민족문화의 요람의 하나로서 살아 있는 거대한 역사박물관
으로 유명하다.

1968년 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주는 1979년 유네스코(UN-
ESCO)가 세계 10대 유적지의 하나로 지정할 만큼 드문 관광지가
기도 하다.

현재 경주는 지방의 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옛날 신라 때에는 17만 8,935호나 되는 가옥이 1,360 방에 들어차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인구 백만이 넘는 대도시였던 옛 경주는 오늘날 경주의 7배에 가까운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그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와집에서는 참숯으로만 밥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호화스러운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경주의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된 것은 55 종에 달하며 국보급만 26 종이나 된다. 그 외에 사적과 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면 200 종을 초과해 야외박물관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2 대구 개관

대구는 국제적인 섬유공업도시라고 칭할 수 있으며 사과 생산량이 많은 도시로 유명하다.

대구에서 출토되는 무문토기 등을 보아 대구는 B.C. 1000년경 전부터 이미 대규모의 주거지가 형성되었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D. 1세기경에는 ‘달구화’, ‘달구벌’이란 부족국가가 있었으며 757년 대구(大丘)로 개칭되었다가 조선조 1780년경에 ‘대구(大邱)’로 바뀌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산업이 발달되고 지형학적 중요성에 따라 경상도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1601년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되면서 경상도의 행정, 산업, 군무 등을 통괄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자주 자강 국민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6·25 전쟁시에는 대구가 국가 사수의 최후의 보



루로 되었다.

지형상 대구는 동해로부터 약 80km 떨어진 내륙에 입지하고 있으며, 동북부와 남부의 일부분은 산지이고, 서쪽이 비교적 개방된 분지형으로 산천이 시내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과 합류하여 서쪽의 낙동강에 유입되고 있다. 또한 계절의 변화가 급속한 편으로 기온의 연교차가 심하고 매우 건조하며 뚜렷한 비가 적은 지대이다.

3 주요 관광지

(1) 안동 하회마을과 탈춤

안동 하회마을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방문에서 가장 한국적인 곳을 찾아 방문한 곳이다. 하회마을에서 만들어지는 ‘하회탈’과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탈춤극의 하나인 ‘하회별신굿놀이’는 안동을 아주 유명하게 하였는데 한국 사람들은 안동하면 ‘하회탈’이 떠오를 정도이다.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은 ‘하회별신굿놀이’와 ‘하회탈’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산태극’, ‘수태극’을 이룬 민속마을로, 낙동강이 태극 형상으로 굽이치는 강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 역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별신굿으로 꼽히는데 엄숙하고 조용한 선비의 마을로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하회별신굿놀이’는 오래전부터 하회마을에서 전승되어 온 것이다.

하회마을은 사대부 집으로부터 하층계급의 가람집에 이르기까

지 300~500년 된 130여 호의 대소 고가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민속마을이다. 명제상 유성룡 일가가 크게 번창하며 살았던 곳으로 풍산 류씨가 대대로 살던 전형적인 동성 부락이다.

하회마을 전체는 중요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데 조선 전기 이후의 전통적 가옥들과 영남의 명당지라는 풍수적 경관, 별신굿과 같은 고려시대의 백을 이은 민간 전승 등 전통적 경관과 정신문화의 보존이 잘 어우러져 있다.

또한 전설에 별신굿에 쓰이는 탈은 하회마을에 살던 허도령이 신의 계시를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내용은 아래와 같다.

옛날에 하회마을에 살던 허도령은 꿈 속에서 마을 수호신이 나타나 탈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 그래서 허도령은 목욕을 한 후에 대문에 금줄을 쳐서 외부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다음 정성을 기울여 탈을 제작하였다.

하회마을에 허도령을 사모하는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여러날동안 허도령을 만나지못하자 안탈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 처녀는 참지 못하고 밤중에 허도령네 집에 찾아가는데 대문에 금줄이 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 처녀도 그 금줄이 외부인출입금지라는 뜻을 알고 있지만 허도령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대문을 열고 들어간다.

아주 늦은 밤이었지만 허도령의 방에서는 환한 불빛이 있었다. 그 처녀가 허도령의 방문 앞으로 살며시 다가가면서 손가락에 침을 묻혀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방안을 들여다보는데, 순간 어떤 광경을 목격한 그 녀는 '어머나'하고 짧은 신음소리를 내고 말았다. 왜냐하면 허도령이 정신을 몰두하여 탈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으며 황홀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허도령의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그녀이다.

그 때는 허도령이 마지막으로 이매탈을 만들고 있을 때였다. 인기척을 느낀 허도령이 방문쪽으로 고래를 돌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면서 죽고 말았다. 그 처녀가 몰래 훑쳐보는 행동이 신의 노여움을 샀고 벌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하회탈 중에는 이매탈만이 턱이 없는데 그것은 허도령이 마지막에 이매탈을 완성하면서 턱은 만들지 못한 채 죽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허도령이 만든 하회탈은 12 개라고 하는데, 3 개가 없어지고 지금은 9 개만 남아 국보 제 121 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때로부터 하회마을에서는 억울하게 죽은 허도령의 넋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별신굿은 허도령의 넋을 위로하고 마을의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탈놀이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가면극의 하나로 3년이나 5년 혹은 10년마다 한 번씩 음력 정초에서 대보름까지 진행한다.

그리고 별신굿을 보지 못하면 죽어서도 좋은 데 가지 못한다는 전설이 있어 별신굿놀이가 시작되면 하회마을 사람들은 물론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한다.

별신굿놀이는 특징이 허물 좋은 지체만을 사랑하는 양반들과 속 빈 선비 그리고 파계승을 신랄하게 야유하고 비판하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또한 안동에는 역사유물과 문화재, 사찰, 관광지 등도 많은데, 도산서원, 도연폭포, 안동민속박물관 등이 그것이다.



갯가지 탈

(2) 불국사

세계문화유산 지정(1995년)과 한국의 사적 및 경승 제 1호로 지정되어 있는 불국사는 세계적으로 진귀한 문화명물이다. 신라인이 불교의 천국인 불국을 건설하겠다는 이상과 의지로 세운 절이 바로 불국사이다.

경주 토함산 자락에 위치해 있으며 원래 대웅전, 극락전, 무설전, 비로전, 관음점, 지장전, 십왕전, 웅진전, 오백나한전, 향로전, 천불전 등 목조 건물이 총 2천 칸이 넘는 큰 절이었으나, 임진왜란 때 목조건물들이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불국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고문헌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불국사의 자리에 일정규모의 절이 있었는데 751년 대규모의 절로 증축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현재의 경내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대웅전과 극락전 및 비로전이 각각 중심건물이 된다. 각 영역은 영역에 이르기 위한 계단, 영역 입구인 문, 영역의 중심건물, 영역을 둘러싼 회랑 등의 네 가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다.

불교적 해석을 빌면 각 영역이 하나의 이상적인 세계인 불국(佛國)을 형상화한 것으로 대웅전 영역은 석가여래의 세계를, 극락전 영역은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비로전 영역은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세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들 세 영역 가운데 중심이 되는 공간은 대웅전 영역이다. 이 영역은 청운교·백운교와 자하문, 대웅전과 무설전이 남북 일직선사의 축으로 중심을 이루며, 이를 감싸고 있는 회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대웅전 앞마당에는 석등과 석가탑(국보 제 21 호), 다보탑(국보 제 20 호)이 있어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면 다보여래가 증명을 한다는 구도이다.

앞쪽에 범영루와 좌경루가 좌우대칭이 되어 팽팽한 긴장감을 준다.

대웅전 경내에 들어서면 불국사의 사상과 예술의 정수라 할 수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이 시선을 끈다. 두 탑은 서로 크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으나, 모양과 그 주변 분위기가 서로 어울려져 경내를 장엄한 불국토로 만들고 있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각기 석가여래상주설법탑과 다보여래상주증명탑으로 불교의 이상이 이곳에서 실현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갖는다.

대웅전 뒤쪽의 무설전은 경론을 강의하는 곳으로, 신라 때 만든

기단 위에 아홉 개의 기둥이 다섯 줄로 서서 육중한 맞배지붕을 떠받치고 있다. 무설전 뒤쪽의 가파른 계단을 오른 피라미드식의 지붕을 얹은 아름다운 관음전이 있다.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청운·백운교 계단을 올라가면 자하문이다. 자하문(국보 제23호)은 석가모니의 피안세계인 대웅전 영역으로 들어서는 관문이다.

비로전 안에는 통일신라 때 조성된 비로자나불이 있다. 비로자나란 ‘빛을 발하여 어둠을 쫓는다’는 뜻으로,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화엄 불국의 주인이 되는 부처이다. 오른 손은 불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중생계를 표시한 것이다.

극락전 안에는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 27 호)이 결가부좌를 하고 있다. 오른손은 무릎 위에 놓고 가슴께로 올린 왼손은 엄지와 장지 손가락을 짚어 이치를 설법하고 있는 자세이다. 풍만하고 탄력있는 살결 위에 간결하게 흐르는 옷누름, 전체적으로 인자하고 침착한 모습의 이 불상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있는 백불사의 약사여래상과 함께 신라시대 금동불상 중 가장 크고 훌륭한 것이다. 8세기 중엽의 작품이다.

(3) 석굴암

석굴암은 1995년에 불국사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석굴암은 통일신라의 문화와 과학의 힘, 종교적 열정의 결정체로서 국보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는 문화재이다.

주실에는 본존불인 석가여래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및 제자상 등 불상을 조각하였고 앞방에는 인왕상과 사천왕상 등이 부조되어 있다. 비록 석굴사원이지만 사찰 건축의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있어 불교세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굴암 십대 제자 부조상은 특징있는 표현과 예술성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세계 불교미술사에 있어서도 극히 드문 대형조상으로 손색이 없다.

십대 제자상은 여러 번 보수를 거치면서 순서가 바뀌었을 지도 모르지만 열명의제자가 책임지고 설법, 수도, 불사 등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자상의 특징은 전부가 머리를 깎았고 발목까지 이르는 가사를 입었는데, 두 어깨에 걸치지 않으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머리에는 등근 두관이 새겨져 있고 두발 밑에는 타원형의 대좌가 놓여 있다. 높은 코와 깊은 눈 등은 서역사람들과 닮은 듯하다. 제일 작은 제자상이 높이 2.08m 이며 가장 큰 제자상은 높이 2.2m에 달한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석굴암은 복원공사를 세 차례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 때 석굴암을 완전 해체하고 잘못 조립했기에 지금 불상들의 위치와 정확한 구조는 전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원래 습기가 많은 자연적인 장애를 극복하고 천년을 넘게 버텨 온 석굴암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뛰어난 것으로 자체적으로 환기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나, 보수를 하면서 당시 신소재로 각광을 받던 세멘트로 석굴암 둘레를 막아 버렸다. 결국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내부에는 습기가 차게 되었다. 그 후 1963년과 1975년 2차례에 걸쳐 원형 복구를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잘못 수정했던 굴의 배치를 바로 잡고 지하수가 굴의 주

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리했다. 현재 석굴암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유리로 차단해 놓고 있다.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후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욱 돋보인다.

(4) 울릉도

포항 및 울진 후포항에서 쾌속선을 이용하여 2시간 반이면 울릉도까지 갈 수 있는데 포항항에서 뱃길로 270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식물관광은 울릉도 관광의 대표적인 관광이다. 해안식물에서 고산식물까지 575 종에 이르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 그 밖에 울릉도의 나리분지는 거대한 규모의 분화구로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하며, 최고봉인 성인봉과 울릉도 해상일주는 관광의 핵심코스이다.

또한 울릉도의 나리분지와 인근 산지의 산채로 만든 산채전과 오징어는 관광객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제7장

경상남도

1 경상남도 개관

1876년에 개항된 부산은 현재 약 360만명의 인구가 있고 1963년에는 경상남도에서 분리되어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한국 최대의 국제물류 및 교류를 담당하는 항만도시로 발전하였다. 1995년에는 광역시로 개편되었고 ‘SMART 21’이라는 도시 장기 발전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부산은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동부산권은 정보 관광거점 도시로 되어 있고 서부산권은 생산 물류거점 도시로 되어 있으며 기존도심권은 무역 금융거점 도시로 3대 권역별 특별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는 전국 제일인 양산의 통도사와 부산의 범어사, 합천의 해인사 등이 있는데 승려들의 바른 교육을 전담하던 호법사찰이다.

울산은 천혜의 항구도시로 온난한 기후를 가졌다. 울산은 항구가 있음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동아시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관문으로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 관문을 통해 여러 나라와 교류 협력관계를 넓히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1057km²의 면적을 가지며 백십만 명의 인구가 모여살며 한국 7대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태화강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와 울산만에 연이어 있는 울산항, 온산항, 방어진항, 그리고 이들 항구의 내안 구릉지에 형성된 약 1900 만 평의 공업용지는 공업도시 울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형성하였다.

경상남도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으로 말하면 북서쪽에는 소백산맥이 뻗어 내리고 남동쪽은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 방언을 많이 쓰는 데 억양이 강한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자주적인 문화를 가꾼다.

둘째, 낙동강 유역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으며 농업이 발달하고 넓은 분지와 충적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셋째, 해상교통이 오래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상공업의 발달을 뒷받침해 주었다.

2 주요관광지

(1) 부산 자갈치시장

자갈치시장은 매년 10 월 중순에 열리는데, 현재 부산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때가 되면 회 값이 아주싸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일주일동안 잔치를 벌리는데 '용왕제', '환경캠페인', '생선무게 알아맞추기', '매운탕 끓이기 대회', '불꽃놀이', '풍어제' 등 행사가 재미있게 펼쳐진다.

자갈치시장은 6·25를 전후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물려든 피난민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여기에 행사

노점을 시작했는데 이로부터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시장이 생겼다. 그때 당시 대부분 상인들이 전쟁 미망인이었기 때문에 억척스럽게 일을 했고 자갈치 아줌마의 기질이 지금도 이어진다. 이 자갈치시장에 오면 생활의 활기가 듬뿍 차 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며 장사하는 아줌마들 또한 ‘자갈치 아지매’라는 사랑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갈치 아지매들은 생활의 활기를 내뿜으며 장사를 하고 활력을 자랑하는 자갈치시장은 벽적거리는 분위기속에서 손님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곳으로 되었다.

자갈치시장의 회센테에서도 아나고회가 유명하다. 거기에 가면 대부분이 여자인데 경상도 아지매들이 억척스럽게 일하고 활기차게 장사를 하며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파닥거리는 고기들의 물튀는 소리도 반주를 하면서 늘 시끌벅적한다.

부둣가의 노점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순대나 국수 따위가 있고 회를 먹으려면 부둣가의 크게 지은 돛집에 들어가 맛있는 회를 맛볼 수 있다. 건물의 1층에는 생선을 팔고 위층으로 올라가면 회를 떠주는데 신선한 회를 맛볼 수 있어 좋지만 바가지 씨우는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가격 또한 잘 상의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자갈치시장의 부두에 가면 또한 해상택시라고 할 수 있는 통통 배를 탈 수 있는데 교통 체증이 심한 부산에서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주변의 초량동에는 초량 외국인상가지역으로 되어 있어 러시아 상인과 일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한다.

(2) 해운대

해운대는 한국 최대의 해수욕장으로 온천과 해수욕을 겸할 수 있다. 해운대의 약 2km의 거리에 펼쳐있는 백사장에는 여름철에 하루 백 만명 이상의 해수욕객이 몰려들어 해수욕을 즐긴다고 하는데 그중 외국인만 해도 20 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그래서 해운대는 예로부터 '조선 8경'으로 꼽히던 경승지이다.

해운대라는 이름은 신라의 석학이던 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에 입산하면서 이곳에 들러 서남쪽 동백섬 바위에 '해운대'라고 자신의 별명을 새겼는데 그게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해운대의 철석 철석 하는 파도소리는 사람들의 심경을 울려놓으며 해변가를 걸으며해풍을 맞받아 마음을 크게 비우고 사진도 찍으며 그 경치는 그야말로 절경이 아닐 수 없다.

해운대는 시원한 드라이브 코스로 해변가를 거니는 황홀함을 느낄 수 있으며 고품격의 호텔과 레스토랑도 있어 찾는 이들의 즐거움을 산다. 그중 가든비치호텔 앞쪽 미포선착장에 가면 방금 잡아온 싱싱한 횡거리를 살 수 있는데 그중 멍게와 해삼을 싼 값으로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다고 한다.



제8장

전라북도

1 전라북도 개관

전라북도 사람들은 섬세한 심미성을 갖고 있어 문화, 예술 등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다. 전라북도는 오늘날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문화를 구비하고 있는 고장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으며 멋과 맛의 고장이기도 하다.

순창 고추장으로 맛을 낸 먹음직한 전주비빔밥을 맛보면 황홀한 맛에 감동을 느끼며 맛의 고장이 전라도인 것을 한층 더 느끼게 한다.

전라북도는 전주의 부채, 특히 합죽선과 창호지, 남원 운봉의 목기, 장수의 돌솥, 고창군의 자기 등으로 유명하며 전국에 잘 알려진 자랑할 만한 명물 또한 수두룩하다.

내장산의 단풍제, 남원의 진포예술제, 익산의 마한민속제 등 놀이는 지방문화를 대표하며 전통풍습이 담겨져 있고 전주의 대사슴(음력 5월 5일)은 이제 한국 가락의 진수를 이어갈 채비를 하게 되었다.

2 주요관광지

(1) 전주

전주는 예로부터 선비의 정신을 구비하고 있는 선비의 도시로 유명하다. 또 전주비빔밥은 전주의 뛰어난 별미음식으로 유명하고, 동고산은 진달래로 유명하다.

부근에는 관광 여가자원이 아주 풍부한데 경기전, 내장산, 금산사, 미륵사지, 화심온천, 군산회음식 등이 있다.

(2) 전주비빔밥

평양냉면, 개성탕반과 함께 조선 3대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전주비빔밥이다. 옛날에 전주비빔밥은 고관들이나 양반집에서 식도락으로 즐겼던 귀한 음식이었다. 현재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면 누구나 즐기는 향토음식이다.

전주비빔밥의 재료는 콩나물, 청포묵, 참쌀고추장, 쇠고기 육회, 미나리, 시금치 등 무려 30 여종이나 된다.

또한 쌀밥 만드는 방법 또한 정성이 담겨져 있는데 닭 삶은 국물과 등심살 삶은 국물을 혼합해서 소나무 가지나 솔방울로 불을 때어 꼬두밥을 짓고 퍼담아 식혀 가며 맑은 물을 살짝 풍기면 쌀밥에 고슬고슬한 윤이 흐른다고 한다. 이렇게 만든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날 지경이다.



(3) 전주한옥마을

여기는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박물관, 동학혁명기념관, 공예품전시관, 명품관, 전통문화센터, 강암서예관, 경기전 풍남문 등 볼거리들이 많은데, 전주의 명물들이 집합된 곳이다.

제9장

전라남도

1 전라남도 개관

아름다운 전라남도는 자연풍경이 수려하고 기후조건이 부드러우며 자랑할 만한 멋을 간직하고 있으며 가락을 즐길 줄 아는 예향임을 과시하면서 전라북도와 함께 예와 멋의 고장이라고 불리고 있다.

법조계, 예술계, 예능계에서 활동이 두드러지는 사람이 호남인이다.

남도창이란 전통적 가요가 전통 가요 중 으뜸이란 미명을 갖고 있는데 남도창은“호남의 창”을 의미한다.

전라남도는 산수가 수려하고, 반도와 무수한 섬이 다도해를 이루고 있어서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 내장산, 월출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립공원이 있고, 도립공원이기는 하나 무등산, 조계산, 두륜산 등의 빼어난 경승지가 있다.

전라도는 경상도와 더불어 큰 절이 많은 곳인데 화엄사, 송광사, 선암사, 대둔사, 백양사 등의 본산이 있고 근년에야 겨우 알려진 연곡사, 천은사, 태안사, 흥국사, 쌍봉사, 보림사, 운주사, 유마사 등의 절은 의외로 대단히 유서깊은 절이다.



멋을 절들인 명물로는 담양과 영암의 죽세공품, 광양의 패도(은장도), 보성의 화문석, 강진의 청자, 해남의 옥석세공품, 나주의 소반, 목포의 도자기 등 일일이 꼽기조차 힘들 정도이다.

광주 근교의 가사문화권과 강진, 해남지역은 이름난 여행코스이다.

2 주요관광지

구례 지리산

총 면적이 440.485km²인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한국 최초의 국립공원 제 1호로 지정되었으며 전라남도 구례군과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 함양군 등 3개도 5개군에 걸쳐 있는 광대한 산이다. 그리고 1997년 1월 18일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례군 일원(78.02km², 지리산오천 및 화엄사 등)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지리산국립공원은 예로부터 민족의 영산으로서 금강산과 더불어 오늘날까지 한민족과 함께 해왔다.

주봉은 해발 1,915m의 천왕봉이고 반야봉(1,751m)과 노고단(1,506m)이 3개 고봉을 이루는데, 1,500m 이상의 큰 봉우리가 10여개, 1,000m를 초과하는 것이 2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외에 남녘 최대의 산악군을 이루는 80여개에 달하는 봉우리가 있다.

1989년 12월에는 지리산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하여 심원계곡과 피아골 일대 20.2km²을 자연생태계 보전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지리산에는 화엄사

를 비롯하여 쌍계사 연곡사 등 17 개소의 사찰과 국보 7 점, 보물 25 점 등 귀중한 문화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원시림이 잘 보존돼 있는 곳이다.

이와 같이 지리산 국립공원은 한국민족의 소중한 자산이다. 한국 육지공원 중에서는 최대규모로 등산애호가든 물론 휴식공간이자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올바르게 이용하고 잘 보호하여야 한다.

【注意】

“노고단의 운해”, “피아골의 단풍”, “반야봉의 낙조”, “세석의 철쭉” 등 지리산의 10경은 100번을 봐도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제10장

제주도

1 제주도 개관



제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1294 년의 일이다. 1946 년에는 전라남도에서 분리되어 제주도로 승격되었다.

제주도는 서울 면적(625km²)의 약 3 배로 총면적이 1,845km²이며 동서로 73km, 남북으로 41km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16℃에 달하고 가장 추운 1월이 1℃이며 가장 더운 여름이 33.5℃로, 연교차가 가장 적은 지방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안개가 끼는 날이 많다. 겨울에는 기온차가 심하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습하고 비가 많이 온다. 즉 제주도의 기후는 계절에 따라 대륙성과 해양성의 특징이 뚜렷하다.

석기시대부터 제주도에서는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으며 타제석기, 골각기 등 유물이 발견되었다.

제주도의 개벽신화인 3성 신화에 의하면 태고에 한라산 북쪽 삼성혈에서 나온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라고 하는 “삼성신(三聖神)”이 가죽 옷을 입고 사냥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벽랑국”에서 삼공주와 혼례를 올렸다고

한다. 그때 삼공주가 목함을 타고 소와 말, 그리고 오곡의 씨앗을 갖고 와 촌락을 형성하여 살았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탐라”라는 고대국가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을 받아 약 100년간 직 간접적으로 그 지배를 받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에 유명한 조랑말도 그 때부터 사육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전설에 몽고군이 이 곳에 대규모적인 말사육장을 조성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응했다고 한다.

제주도의 한라산은 화산폭발로 인해 만들어 졌고 용암이 흘러 나와 제주도 전체를 덮었으며 폭발 당시 수분과 가스가 많아 지상에서 식을 때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이 틈새는 땅 속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때문에 제주도는 비가 와도 빗물이 땅 속으로 흘러 들어가 물이 고이는 현상이 없으며 지하로 흐르던 물은 해변가에서 해수의 압력 때문에 다시 지상으로 솟아 나온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눈을 구경하기 힘든 것도 이렇게 빗물이 땅 위에 고이지 못하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 물을 잡아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 서귀포시, 성산포, 모슬포 등 대부분의 시가지가 해안에 발달한 것은 해안에서만 식수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는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데 특수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어 다른 지방과도 뚜렷하게 구별된다.

제주도에서 척박한 땅에서 거친 바다와 싸워 이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인들은 모두가 강인한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처럼 인심도 풍부하여 사람들이 찾아들면 친구처럼 정성을 다해 극진하게 보살펴준다.



제주에는 바람과 돌과 여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전설과 민요, 신이 많은 것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키가 큰 설문대 할망이야기 등 슬프로 아름다운 전설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민요의 섬”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민요들이 불리우고 있는데 제주의 해녀들이 부르는 해녀 노래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 만큼 그중 자손을 번창시켜 주는 조상신인 구슬할머니도 있다.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이 신들을 위로하면서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가 일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자신들의 삶도 위로하고 있다.

2 주요관광지

(1) 삼성혈

삼성혈은 제주의 개국신화를 간직한 곳으로 고부양(高夫梁)의 3성 후손들이 제사를 올리고 있다.

제주도 원주민의 발상지인 삼성혈은 전설에 고, 부, 양 삼신이 용출하여 수렵생활을 하다가 벽낭국의 삼공주를 맞이하고 삼공주는 올 때 오곡육축을 갖고 왔는데 이로부터 삶의 터전을 개척했다고 한다.

지형은 품(品)자형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원모양은 점점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다. 상혈은 고, 좌혈은 양, 우혈은 부를 전하고 있다.

(2) 용두암

용두암은 화산암의 하나로 지질학적으로 보면 화산폭발에 의해

용암이 분출하다가 굳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용두암은 바다로 흘러 파도와 부딪혀 용모양으로 형성된 기암인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중 한 전설에 의하면 한라산의 용이 한라산 신령의 옥구슬을 훔치고 달아나다가 들키고, 이에 화가 난 한라산 신령은 활을 쏘 용두암을 해면에 떨어뜨리게 하고 머리부분은 하늘로 향하고 몸 전체는 바다로 잠기게 했다고 한다.

또한 용머리 구에는 네델란드인 하멜의 표착기념비가 있는데 용머리를 관광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정도 걸려야 한다.

(3) 천지연폭포

천지연 폭포는 서귀포 포구에 이어진 냇가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볼 수 있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기암절벽과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기둥을 말한다.

천지연 폭포는 검은 용암 사이로 우리와 같은 소리를 내며 하얀 물줄기로 쏟아지는데 그 웅장함은 가슴을 확 띄이게 한다. 또한 주변 계곡에도 천연기념물담팔수 나무가 자생하고 있고 폭포 중앙 못 속에는 천연기념물 제 27호로 지정된 무태장어가 서식하고 있다.

경관을 이루는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연인들이 야간조경 아래에서 오붓한 밤데이트를 즐기기에 딱이다.

(4) 서귀포

서귀포시는 한국의 최첨단의 도시로 남국적 상품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 서귀포란 이름은 그 유래가 있다. 중국의 진시황이



블로초를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사신 서불(徐福)을 보냈으나 찾지 못하고 폭포벽에 서불과차(徐福過此)라는 네 글자를 새긴 뒤 서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서귀포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전설이 있다.

서귀포시의 북쪽은 한라산을 경계로 제주시와 접해 있고 남쪽은 동중국해에 접해 있다.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서귀포시도 대부분의 인구가 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름이라고 불리는 기생 화산이 산간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서귀포시의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이 한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일교차가 육지에 비해 적고 사시사철 온난한 기후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기온 17.8℃, 연최고기온 35.6℃, 연최저기온 -3.3℃로 한국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이다.

(5) 성산일출봉

영주 제 1 경이라 칭하는 성산일출봉은 제주도 최고의 절경지에 손색이 없다. 제주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가 보고 싶어하는 명소 중의 하나가 성산 일출봉이다.

일출봉은 제주의 동쪽 끄트머리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덩어리로서, 제주도 대륙 형성 이전에 바닷속에서 분출하여 생성되었는데, 정상에는 99 개의 작은 봉우리로 둘러싸인 천연 축구장 같은 분화구인데 그 모습이 거대한 성과 같다하여 성산이라 불리운다. 동남, 북쪽의 외벽은 바닷물에 의해 빙벽(氷壁)같이 날카롭게 깎아 내린 절벽이고 서북면만이 유연한 잔디능선으로 성산마을과 이어져 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잘 다듬어졌는데 그 길을 따라 178m의 정

상에 오르면 오밀조밀한 마을 정경과 해수욕장과 성산포 사이의 노란 유채밭 사이로 내다볼 수 있어 그야말로 장관이다.

또한 3만여 평의 푸른 초원, 깊이가 족하 100m 는 뒹직한 분화구 가장자리에는 오백나한의 전설과 그 수가 같다는 99 개의 날이 선 기암들이 왕관처럼 둘러쌓여 있다.

그중 일출봉의 가장 장관적인 모습은 해가 솟아오를 무렵, 정상에 올라 일출의 모습을 관상하는 것인데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정경에 혼이 빠질지경이다.

(6) 한라산등반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해발 1950m이며, 한반도에서는 백두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웅장한 산이다. 한라산이란 이름에서 “한”은 은하수를 일컫는 것이고 “라”는 손을 들어 잡는다는 뜻으로 손을 들면 밤하늘의 은하수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한라산은 화산활동으로 지금의 한라산이 생성되었으며 화산에 의한 지형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크고 작은 분화구, 산이 수없이 많이 이어지는 고사목과 구릉, 기암, 동굴, 계곡 등이 빼어난 경치를 이루고 있다.

1970년 3월 24일에 한라산을 중심으로 제주도 일부지역이 한라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한라산은 산높이에 따라 수직적으로 난대, 온대, 한대성 등 3대 동 식물이 서식하여 산 전체가 세계적으로 드문 각종 동식물의 보고를 이루고 있다.

산의 높이에 따라 다양한 수림이 펼쳐지는데 봄이 되면 구릉지에 철쭉이 만발하여 한라산을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하고, 여



름이면 울창한 녹음으로 온 산이 온통 푸르며, 가을이면 영실기암을 비롯한 온산에 단풍이 물들며, 겨울에는 수북하게 내린 눈이 쌓여 이른 봄까지 설화와 수빙이 가득하여 한국 제일의 설경을 이룬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중앙에 우뚝 솟아 있어서 제주도 어느곳에서든지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산이 부드러워 보이거나 막상 산에 들어서면 보이는 것과는 달리 꽤 험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온도 차이가 심하기에 등반할 때는 비, 눈에 대한 장비가 필요하다.

부록(附录): 중문번역문(中文译文)

引言

韩国是中国的邻国，位于亚洲大陆东北部向东南突出的一个半岛上，包含有大大小小 3 200 余个岛屿。韩国北部与朝鲜相邻，南部隔东海和渤海，分别与日本和中国相望。韩国的国土面积有 9.96 万平方公里，其中 70% 是山地。

韩国自古以来是一个单一民族国家，总人口有 4 805 万。近年来，随着外国人的流入，韩国渐渐开始显露出多民族的趋势，但单一民族的特点还是非常明显。

韩国的行政区划分为 1 个特别市（首尔特别市）、6 个广城市（釜山、大丘、仁川、光州、大田、蔚山）、8 个道（京畿道、江原道、忠清北道、忠清南道、全罗北道、全罗南道、庆尚北道、庆尚南道）、1 个特别自治道（济州道）。

韩国的官方语言是韩国语。由于和朝鲜分裂的时间较长，导致南北语言产生了一些差异，但这种差异仅仅体现在意义、用法和新词语的使用上，两种语言在沟通上基本没有问题。这些差异可以被看做方言之间的不同。朝鲜半岛的方言大体上可



以分为6种：东北方言（朝鲜的咸镜北道、咸镜南道、两江道）、西北方言（朝鲜的平安北道、平安南道、黄海道北部）、庆尚南北道及其周边地域方言、全罗南北道方言、济州道及其周边地域方言、京畿道和忠清南北道、江原道、黄海道大部分地区使用的方言。

韩国的气候属于大陆性和海洋性气候之间，四季分明。夏季高温多雨；冬季寒凉干燥。夏季最热的月份为6-8月之间，8月的平均气温在25.4度左右。韩国三面环海，因此在韩国夏季是从事海上活动最好的时节，海水浴的最佳季节就是7-8月。冬季最冷的月份是12月-次年2月，北部的平均气温在-8℃，南部海岸则为0℃左右。冬季是体育运动和观光游览的最佳季节。东部由于降雪量较多，开设了很多滑雪场，而在韩国滑雪的最佳季节就是12月-次年2月了。韩国春季为3-5月，秋季为9-11月，两个季节既不冷又不热，非常适宜户外郊游活动。韩国的春季要比秋季雨量多，秋季天气晴朗通透，因此在这两个季节常常举行体育运动盛会和各种庆祝活动。

在饮食和文化上，泡菜、韩服、四物游戏器乐演奏、假面舞等都非常具有韩国特色，深受世人的喜爱和欢迎。



第一节 首尔特别市

1 首尔概况

自李氏朝鲜王朝时期开始，首尔便作为都城，至今已有600多年的历史，可以说首尔是韩国极富代表性的观光和文化艺术城市。这里是韩国的政治、经济、文化教育中心，历史文化遗产丰富，与各国的航空路线也很发达。所以来访韩国的外国人中，约90%都集中在首尔及周围地区。

首尔的人口及产业是韩国的自豪和骄傲。截至2008年底，居住在首尔的人口约有1 045万人，占韩国全部人口的25%，面积605平方公里。

观光景点中，地处市内的景福宫等地是游人最喜欢去的地方之一。仁寺洞、梨泰院以及南大门市场也是外国人经常去的购物区。游人也可以通过各种文艺演出和首尔的夜生活，了解到韩国的传统文化。

在韩国综合展示会场里，会连续不断地举办各种展览会和活动，这也吸引了很多国内外游客。同时，这里有为国内外游客准备的国际化宾馆及购物设施。

外国游客喜欢去的地方有首尔的古代宫殿、梨泰院、板门



店和龙仁韩国民俗村等地。此外，还会到仁寺洞购买韩国的传统民俗物品。

住宿设施主要集中在钟路区、新村和火车站、机场、车站附近。如果想住在既安静又干净的住所，可前往距交通密集区稍远一些的地方。蚕室一带的奥林匹克花园宾馆和良才洞的教育文化会馆价格低廉，是个人或团体经常去的宾馆。

2 主要观光景点

(1) 景福宫

景福宫是韩国最大、最具代表性的李氏朝鲜王朝宫殿。1392年李成桂建立朝鲜王朝，1394年迁都汉阳，第二年就指定景福宫为正宫（正宫是指国王居住的宫殿）。

景福宫内有庆会楼、香远亭等著名亭阁和象征其最高权力的勤政殿等工艺精湛的石木建筑。

高丽王朝时期，从地里风水的角度，曾将景福宫认定为“明堂之地”。自高丽时期起，这里就成为了开城王宫的移宫。

太祖李成桂在新宫殿竣工之际，大宴群臣，共庆新宫殿的筑成，并命令臣子为宫殿起名，这个新名字就是至今仍在沿用的“景福宫”。景福宫自1395年建成之后，曾发生大大小小几次火灾，但历经几代国王，通过多次修建和重修，宫殿规模渐渐扩大。1592年壬辰倭乱时期，因为倭兵和难民放火，宫阙变成一片废墟，之后一直无人问津。直到1865年景福宫才得以开始重建。

今天的景福宫格局即是当时高宗时期重建的原貌。壬辰倭乱时期，景福宫曾只剩下空架子，狐狸和狼在此出没，到处杂草丛生，这样一度被放置了270多年。此后的历代王朝只能居住在重建的昌德宫里了。

到了朝鲜王朝末期，掌握权力的大院君以恢复王权振兴王族为名，开始着手重修景福宫。

为了募集重修景福宫的资金，他动员王室宗亲和富户捐献所谓的“愿纳钱”，有些地方百姓捐不出钱，则要服劳役，在全国范围内动用了大规模的劳工。可在施工过程中，不幸的是意外发生了火灾，损失了大量的木材和其他物资。大院君为了解决入不敷出的财政困境，对进出首尔四大门的人和牛马车上的所有物品征收“通过税”，还向办婚礼的人强征人头税。

几经周折，高宗五年，景福宫重建工作终于完成，从开始到结束用了约40个月。

勤政殿是景福宫的中心建筑物，于1867年完工。国王在此举行即位仪式结束后，文武百官参加朝礼和盛大的宴会。

勤政殿内有国王曾坐过的御座，御座后面立有画着山、太阳和月亮的5扇屏风。勤政殿天棚上画有一对黄金龙，代表国王的权威。

庆会楼最早是为设宴迎接中国使臣而建的。最初的建筑已在壬辰倭乱时被焚毁，现存的建筑是1867年重修的。48个石柱上高架着2层阁楼，这里是王室、大臣以及外国使节举行宴会的地方。

香远亭是国王和王族们的休闲空间。景福宫北边淡雅的莲花池和亭阁相得益彰，春天连翘花盛开的时候，更能彰显出浓



厚的、韩国特有的风情。

此外，景福宫内还有国王平时居住和处理政事的思政殿、惊天寺遗址 20 层石塔（国宝第 86 号）、法泉寺智光国师玄妙塔等约 20 多座国宝级的塔。

景福宫的布局是南北方向排列的长方形。南面是正门光化门，东面是建春门，西面是迎秋门，北面是神武门。这四个门也象征着四神：光化门象征朱雀，建春门象征青龙，迎秋门象征白虎，神武门象征玄武。

(2) 德寿宫守门将士的交接仪式

每年 4 月到 11 月的每个周末，德寿宫门口都会举行王宫守门将士的交接仪式。国王居住的宫城禁止一般人出入，所以被叫做“禁内”或是“禁宫”。在禁宫里护卫国王的军队叫做“禁军”。

这些将士负责护卫大殿，也负责守卫宫城。在朝鲜时代，有宫城门的“宫门开关仪式”、守卫宫门的“宫城侍卫仪式”、带领军士巡察城内的“行巡”仪式等。今天的守门将士交接仪式是将这些仪式综合为一体的一种展示。

位于德寿宫石造殿的宫中遗物展览馆里有 800 多种遗物。通过这些遗物，游客可以了解宫廷的生活文化和朝鲜王朝 600 多年的历史，所以这里是游客必去的观光地之一。

(3) 国立中央博物馆

国立中央博物馆可以说是一本展现韩国历史和文化艺术的历史教科书。它曾经位于钟路区世宗路，于 2005 年搬迁到龙

山区龙山洞，面积约为 41 500 多平方米，是东方最大规模的博物馆。馆内陈列着朝鲜王朝时期的遗物，与佛教相关的美术品以及三国时期的遗物等珍贵文化遗产。这里还经常以家庭和小朋友为对象，举办精彩有趣的各种教育节目。从首尔地铁 4 号线二村站步行到博物馆仅需大约 5 分钟就足够了。

(4) 青瓦台·木槿花景观

青瓦台以北汉山为背景，在这里可以看到首尔市内的整体面貌。青瓦台古代曾是官兵的武术练习场以及科举考试的地点。现在将以往权贵们的神秘空间建成公园，向普通老百姓开放。

(5) 宗庙和宗庙祭礼乐

宗庙是供奉朝鲜王朝历代君王、王妃及追封王妃神位的寺庙。始建于 1394 年，第二年 9 月完工。随着供奉神位的不断增多，历经数代国王，宗庙面积也有所扩大。原来只有正殿才被称作宗庙，世宗时期的别殿被叫做永宁殿，如今两者合而为一，统称为宗庙。正殿里供奉有功勋卓著的先王神位，永宁殿里供奉其他国王的神位。功臣堂有朝鲜王朝功臣 83 位。宗庙是传承以忠孝为根本的朝鲜王朝时期伦理、道德观的珍贵文化遗产。每年 5 月的第一个周日，会在这里举行宗庙祭礼乐。宗庙祭礼乐是韩国的第一号无形文化遗产，是祭祀朝鲜先祖的一种仪式，现已被列入世界文化遗产当中。

宗庙祭礼：朝鲜王朝时期，国家祭祀分为大祀、中祀、小祀。宗庙祭礼与社稷礼一样属于大祀，是国王亲自进行的、非

常庄重的“吉礼”。宗庙祭祀分为春、夏、秋、冬四个季节里的大祭和三月祭祀，加起来共有5个祭祀日。而永宁殿的祭祀日只在春天和夏天有，共2次。韩国光复后，祭礼活动曾一度被取消。从1971年开始，全州李氏大同宗约院在每年5月的第一个周日举行宗庙祭礼。

宗庙祭礼乐：祭礼乐是在宗庙举行祭祀仪式时演奏的音乐。在诸多乐曲中，“保太平”和“正大业”为世宗大王所做，世祖时它被缩短，1464年作为宗庙祭礼乐初次使用。“保太平”用来歌颂历代帝王的文德，“正大业”用来歌颂历代帝王的武功。在此基础上，加之赞颂先祖功德的“乐正”和64人跳的“八佾舞”，使祭礼氛围更显庄严凝重。宗庙祭礼乐具有很高的历史价值和艺术价值，是唯一一个延续韩国传统音乐命脉的古代传承，是珍贵的文化遗产。

(6) 昌德宫·秘苑

1997年昌德宫秘苑被列入世界文化遗产，由此也引起了世人的关注。

朝鲜王朝时期修建了该宫殿。昌德宫因其后院——秘苑而出名，虽然也饱尝了很多灾难，但与其他宫殿相比，可称得上是原貌保存比较完好的宫阙。

昌德宫后院的秘苑以美丽的庭院闻名，这里有各式各样的亭阁和随处可见的数万花草树木，作为韩国最有人气的观光地，受到人们的青睐和喜爱。这里被称赞是可以感受到最具韩国特色的自然风情的地方。

但1592年壬辰倭乱时期，倭军入侵汉阳，景福宫、昌德

宫、昌庆宫三个宫阙被烧毁，只有宗庙逃过一劫。如今昌德宫内剩下的主要殿阁及建筑物有仁正殿、敦化门、宣正殿、大造殿、乐善斋等建筑物。

朝鲜王朝时期昌德宫的后院秘苑是王室风流潇洒的场所。这里有很多莲池、亭阁和郁郁苍苍的千年桂木、香木，还有体现韩国古典建筑美的芙蓉亭、映花堂、鱼水门、宙合楼等。秘苑更有“人景合一”的奇特魅力，会令游人同大自然融为一体。

秘苑将朝鲜时代的自然主义完美地保留了下来。与技巧复杂的中国式庭院相比，与巧夺天工的日本式庭院相比，秘苑只不过是大自然的风景原封不动地保存了下来，使自然美得以抒发得淋漓尽致。

(7) 云岫宫·王妃婚礼

云岫宫是高宗父亲大院君的私邸，因举行过高宗和闵妃明成皇后的婚礼而闻名。这里以高宗和明成皇后举行婚礼的老乐堂、里侧的二老堂、厢房老安堂为中心，配有相应的回廊和警备路。高宗即位后，这里升格为宫殿，但由于大院君的没落和日本帝国的占领，宪兵队进驻这里后，便渐渐走向衰落。

最近首尔市从大院君5代孙手里将云岫宫收买复原，并在这里重演当时高宗与明成皇后成婚的场景，从而吸引了大量游客。在这里游客可以亲眼目睹国婚的仪仗和华丽服饰。

每到周六还会有国乐公演，并且定期有宫中士大夫礼仪、物品展等，都很值得观看。

(8) 仁寺洞

仁寺洞是展卖古董和古代美术品的古文化街道，深受外国人的喜爱。

仁寺洞古代美术品一条街的历史有 80 余年。在这里交易的古代美术品大部分是古画、陶瓷、木器及金属制品，从统一新罗时代的土器，到朝鲜时代的白瓷，应有尽有。

古代美术品商家可分为古家具商家和专营古代器物的美术品商家、摆设品商家等。在这里，从一万韩币的小东西到数亿韩币的贵重物品多种多样，应有尽有。还有专门的古家具美术品经营者。

说起仁寺洞，就自然要提到长安坪。长安坪同仁寺洞一样，也因古代美术品而闻名，而且也是古董商品的聚集地，可称得上是传统名品的博物馆。店铺里陈列着古色古香的各类商品。在这里游客可以看到新罗时期的土器、高丽时期的青瓷、朝鲜王朝的青瓷和白瓷、各种古典书籍、书札、民画等古代物品。糕饼模具、熨斗、灯盏、烛台等生活用品，簪子、戒指、玉石等装饰物品也都带着古代遗风。

仁寺洞一带主要以销售高价位古代美术品为主；而长安坪主要展卖石器、古家具和生活用品。古董价位虽然千差万别，但也并没有想象的那么贵。

如今古灯、缸、门扉等物品都被人们拿来装饰房子。柜子和钱匣也很受欢迎。如果在长安坪购买陶瓷类产品，想买一些值得观赏的东西大概需要 100 万韩币，但用 5 万韩币就可以买下的高丽的土器，用 10 万~30 万韩币就可以买到青、白瓷盘子。

(9) 明洞

这里是首尔带有传统气息的繁华商业区，也是引领时尚和潮流的中心商业区。明洞的商家主要以经营女性服装为主，同时也有销售时尚男女鞋类、服装等的店铺。周围有中国大使馆，有新世界、乐天等大型百货商店，也有朝鲜宾馆、乐天宾馆等特级宾馆，是名副其实的首尔中心区。

明洞的另一大景点就是位于繁华明洞闹市区的海拔颇高的明洞教堂。这里是天主教首尔大教区的主教堂，也是韩国天主教的发源地。由于迫害和镇压，韩国天主教有很多教徒殉难。1882年韩美建交后，宗教获得了自由的发展。1892年，文·阿乌古瑟提努大主教开始着手修建明洞教堂，1898年5月完工。

(10) 东大门市场

东大门市场建于1905年7月，曾有“广藏”一名。所谓“广藏”是指这里最早曾经被“广藏株式会社”经营管理。经过数十年的发展，现在东大门市场已拥有32个商家、2.8万余个店铺，年销售量达15兆韩元，是韩国最大的时装市场。市场里有“doota”、“migliore”、“cerestar”(原青大门)、“design club”、“nuzzon”等新建的购物大厦，也有新和平市场、南和平市场、东华市场等原有的服装市场。这里每天会有数十家的店铺倒闭，也会有数十家的新店铺开张，是时尚和时装产业的竞争之地，也是韩国唯一一个流行时装的专门销售场所。

东大门市场的范围从钟路5街站开始到东大门地铁站，经营项目包括服装、体育用品、家庭用品、床上用品等。此外，



这里还有价格较低的书籍和文具批发市场，以及不锈钢厨具市场等，是韩国名副其实、首屈一指的现代化时尚市场。

(11) 南山·首尔塔

南山公园位于市中心。园内环路和步行路相互连通。公园到处都有室外音乐厅、动物园及仙人掌植物园，堪称世界级规模的植物园。园内还有小朋友游乐园。金九、安重根、丁若庸等韩国伟人的铜像也安设在园内。坐缆车可触及山顶。山顶有八角亭，游客可以在这里休息。

南山山顶的高塔叫做首尔塔。首尔塔上设有广播天线和展望台。坐电梯可以直接升到首尔塔顶端。塔顶有5层的旋转展望台，在展望台看夕阳西下后的夜景更是无比壮观。首尔塔的地下海洋水族馆里有500多种、一万多条大小不一的观赏鱼，分设在50多个水槽中，展现出形形色色的海洋景观。

首尔塔海拔约480米，紧随莫斯科塔（537米）之后，排名世界第二。首尔塔位于南山山顶，可以纵览整个首尔市。自1980年10月15日向市民开放后，便成了韩国的观光景点之一。

(12) 梨泰院

梨泰院位于首尔龙山区梨泰院洞、汉南洞一带。从假日梨泰院酒店到梨太院十字路口，总长为1.5公里。

起初这里以美军为销售对象，出现了一些小商店。此后渐渐广为外国游客所知，发展成了现在的规模。

这里的商家约有2000多家，多以贩卖服装、皮制品、古董品为主。胡同里布满了从名牌手表到高尔夫球杆等各类商品。

梨泰院可称得上是国际观光地，在这里可以尽享各国美食。

(13) 63 大厦

大韩生命 63 大厦 1985 年 4 月竣工，高 264 米，比南山低 1 米。据说一块金黄色的特殊玻璃价值 30 万韩币，这样的玻璃总共有 1.4 万块，仅玻璃一项就耗资 40 亿韩元。

从安全指数上讲，它采用了特殊的基础墩工艺，打下了牢固的地基基础，可抵抗 40 公里的超强风速和 7 级地震，安全指数相当高。大楼顶部为铁骨设计，可以抵抗 30 厘米范围内的左右晃动。发生火灾时，可在高达 1 000℃ 的温度下坚持 2~3 个小时。

内部设施有超大屏幕特殊电影院、水族馆、购物中心、办公室等。如果天气晴朗，可看到 50 公里内的建筑物，在 60 层的展望台上，可以看到仁川前海和蚕室奥林匹克城等。

(14) 艺术殿堂

艺术殿堂内设 1988 年开放的首尔音乐厅和首尔书法艺术馆，1990 年成立过韩家岚美术馆和艺术资料馆，是一处复合型文化艺术的展示场所。

这里汇集了音乐、书法、美术等方面的信息，以及歌剧、话剧、舞蹈、实验艺术活动等各种公演活动，其完美的表现堪称世界级的大舞台。此外，也有交易场所、韩国庭院、象征广场等室外空间。

夏季，有的在室外搭建舞台，以避免室内的炎热。这里不仅表演和举办经典作品、音乐剧、通俗歌曲音乐会，还举办时装秀、电影欣赏等各种各样的活动。



第二节 京畿道

主要景点

(1) 韩国民俗村

韩国民俗村是外国游客最喜欢的观光地之一，在这里最能感受到韩国的传统文化。民俗村再现了古代都城——汉阳(今天的首尔)的生活面貌。

这里有身穿传统韩服的少女，有头戴纱帽、嘴叼长烟斗、表情严峻的老人，有骑着短腿马的新郎官和害羞地坐在花轿上的小媳妇儿。

制酱作坊、陶瓷窑炉、打糕坊等也再现了以前的样子。

露天圆形剧场上会上演精彩的农乐表演和穿戴华丽服饰的婚礼表演，使游客沉醉到民俗庆典活动当中。

游客进入民俗村，麦芽糖商人会趁机把大块的麦芽糖兜售到游客跟前，似乎给游客插上了想象的翅膀，不吃麦芽糖会后悔一辈子。

徜徉之间，再多走上几步就到了小草屋的庭院，这里就是韩国传统的路边酒家。人们围坐在庭院里，喝着具有传统特色

的马格利酒和清酒。一种抵挡不住的诱惑使游客不得不踏入庭院。这时，女主人会将打糕、煎饼、橡子凉粉等传统小吃摆上酒桌款待来客。

就像久违的朋友一样相互包容接纳，并按照韩国传统的喝酒方式推杯换盏，很快游客的脸就会红得像朵云，所有的疲劳也随之烟消云散了。

在韩国民俗村的龙仁民俗场馆，会展示传统物品。在这里可以买到朝鲜时期的男女装饰品等传统民俗工艺品作为纪念。还可以集中品尝到韩国传统的小吃，这一点足以让来访的游客心满意足。

人们坐在拥挤的集市上，吃着年糕点心、小煎饼、橡子凉粉、绿豆煎饼，大碗喝着马格利米酒和清酒，不知不觉当中，外国人也会感觉自己似乎已经成了当地人。

在龙仁民俗馆还有很多有意思的节目，在这里能骑到新郎官骑的短腿马，坐上新娘坐的大花轿，还可以体验韩国式传统婚礼。

韩国民俗村附近还有韩国最大的家庭娱乐场所——龙仁爱宝乐园，这里也是游客非常喜欢去的地方。

(2) 龙仁爱宝乐园

龙仁爱宝乐园可称得上是韩国娱乐公园的代表。1976年4月开始以大农庄模式投入运营，2006年被《福布斯》杂志评为世界第四大主题公园，颇具国际规模。

自然农园内有经济林地、动物园、植物园、游乐园、美术馆、赛车场、研修院等区域。游乐园里的40多种文化娱乐设施可以培养孩子的冒险精神和勇气，“天空飞舞”、“诡异之城”



等娱乐设施也极具特色。被称为“老鹰要塞”的云霄飞车是韩国最早的一套翻筋斗电车设备。亚马逊密林里的家庭式“亚马逊快车”，与水融为一体“激流勇进”，“自行车旅行”、“幻想特级”等项目也备受人们的喜爱。

在这里每年都会举行各种各样的活动。在不同的季节里，会举办郁金香节、玫瑰节、百合节、菊花节等活动。每年4月初到5月中旬都会举办郁金香节。120多种、150万棵、200万株的郁金香装点着郁金香园和整个自然农场，恍惚间仿佛走进了异国荷兰，同时还会辅助有各种活动，从而使节日气氛更加热烈。接下来就是玫瑰节，这个活动持续了11年，玫瑰花有红黄白各种各样颜色，色彩分层的玫瑰花充满了1万多平方米的玫瑰园，这里自然也成为情侣们聚会的最佳场地。

公园里还放养着老虎、骆驼、大象等180多种、4000多只动物。通过“野外旅行”，可以和自然状态下的狮子、老虎等动物亲密接触，这里是世界上唯一一个狮子和老虎共存的场所。

根据主题的不同，龙仁爱宝乐园也被分为几个不同的区域。有各种娱乐设施和文化节日的区域叫做“节日世界”；达到世界最高水准的水上乐园叫做“加勒比海湾”；具备韩国最大规模汽车竞赛设施的赛车场叫做“爱宝乐园超速之路”。龙仁爱宝乐园是世界排名第四的主题公园。

(3) 湖岩美术馆

湖岩美术馆位于秀丽的自然风景之中，于1982年开馆，当时拥有1200余幅美术作品，可以说是在京畿道收藏的国宝级艺术品最多的地方。特别是金铜菩萨像、金冠等都很值得一看。

美术馆不仅收藏有100多个国宝级艺术品，还有土器、民画（反应民间生活风土人情的无名画）、陶瓷器、古书画、金属工艺、山水画等韩国美术史上的重要资料，以及200多位画家的现代画共2.5万余幅，在韩国现代艺术品收藏方面也是韩国最大规模和最高标准的。在室外雕塑园里还有罗丹等很多国内外著名雕塑家的作品。

（4）水原城

1997年水原城被列入世界文化遗产，引起了游人的关注。

水原城以八达山为中心，是环绕在山地和平地外围的建筑群，也是韩国城市中保存最完整的城堡。无论在东方还是西方，水原城都具有极高的科学性，是近代初期军事建筑的典范，也得到了世界文化遗产委员会的高度称赞和肯定。

水原城始建于1794—1796年，是正祖大王因孝敬父亲，为迁回其父在扬州的遗骸而建的。因此也因正祖的孝道而闻名于世。

水原城城墙全长5.4公里。建城时以缜密的设计为基础，将砖块和石材适当混合，充分考虑了地形条件，规模大，功能性强，是具有近代特征的一处华丽建筑。

城郭有东西南北四个关门。北面是长安门，南面是八达门，西面是华西门，东面是苍龙门。西将台、华阳楼、华虹门、东将台等地则是古时用于军事训练的场地。

宝物402号八达门是水原城的南门，与水原城同时建成，和4大门中的北门——长安门一样，都是水原城中的代表性城门。城门使用了石材，拱形结构，拱形的虹霓上有双重门楼。门的正面有左右两边对称的半圆形瓮城。



华西门是水原城的西门，被指定为宝物 403 号，也与水原城同时建成。设施及规模跟东门苍龙门相似。

空心墩是 2 层岗楼，承担哨所的功能。类似这种岗楼只有在水原城才能看到。岗楼里有通往楼顶的阶梯，每层都设有可朝外射击的枪口和炮口。

除此之外，水原城内还有西炮楼、西北角楼、访花随柳亭、苍龙门、练武台、华兴门等建筑。

水原城的优点和特征如下：

从建成动机上讲，与其说建设目的在于军事，倒不如说更侧重政治、经济和对父母的孝心。城内除门、通道、桥、商铺等基本生活设施外，还有生产基础设施，如蓄水池和屯田等，是有所计划后建造起来的新城市。

水原城与中国及日本不同，水原城建设在平地和山地两种地貌之上，是形态独特的包谷式山城，保有军事防御功能的同时，又有政治和商业功能。

水原城是 18 世纪东洋城郭中的代表性韩国式建筑。根据《华城城役仪轨》的记载，华城不仅在建城的计划、制度、样式方面有所进步，在人力、材料选用及用途等方面也尽善尽美。在建筑史上有很高的价值。水原城不仅建有独具匠心的空心墩设施，城郭的功能和构造也颇具科学性、合理性和实用性，是东方城郭的典范，也是 18 世纪实学思想的精华。

48 个建筑物各具古典美，结合在一起，使整个城郭看起来像是一个艺术品。华虹门具有水门的功能，门楼及 7 个水门与访花随柳亭相融合，使人联想到一幅风景画。

(5) 利川陶磁器节

每年9月或10月，京畿道利川市会以陶艺村为中心举办利川陶磁器节。这时游客可以到附近的海纳陶磁器博物馆和天然温泉——利川温泉享受一天的美好时光。

利川陶磁器节是为了向世界宣传优秀的利川陶磁器而举行的。在文化节里，会开展传统烧窑、陶磁器制作演示等与陶磁器相关的各种活动，向人们推介利川的特色乡土文化——陶磁器、大米和温泉。

文化节举行15天，以利川温泉的室外活动场地、海纳陶磁器美术馆、陶艺村9个窑为中心展开。活动期间可以了解到陶工纪元祭、烧窑等传统民俗活动，还能观赏到现代舞表演、世界陶艺工作者工作展、利川陶艺家作品展等具有现代艺术气息的庆祝活动。

开幕式第一天有传统的陶工纪元祭、跳地神、现代舞表演等节目。此外还有人们一般看不到的传统烧窑仪式。文化节期间，每天的活动都要在完成祭文宣读这一祭礼程序后才能开始。

与此同时，这里还有汇集了利川50个陶磁窑代表作的利川陶艺家作品展，以及从先史时期土器到朝鲜白瓷的韩国杯盖特别展示会。

此外在节日期间，还有安东河回假面舞公演、市立国乐团公演、利川文化艺术团公演、农乐歌唱大会以及陶磁器制作表演等。

(6) 江华岛

江华岛位于首尔西北部，这里的每个角落都遗留有历史遗物和历史遗迹，被人们称为是“活着的历史”。江华岛是韩国



五大岛之一，曾历经了多次国难，有着不屈不挠的抗争史。不仅如此，这里还以古代的灿烂文化而名扬全国。

目前保管在海印寺的八万大藏经，比德国早22年的金属活字，高丽瓷器中的佼佼者——像嵌青瓷等，这些珍贵遗产最早都是从江华岛率先开始创制的。

如今的江华岛是国防要塞，是花纹席的著名产地，也是人参产地，是国民青睐的观光旅游地。檀君王俭祈愿民族发展的瞻星坛位于江华岛摩尼山山顶，摩尼山海拔高度486米，和妙香山一样，传说都是檀君王俭的降临之地。

传灯寺是佛教的发源地之一，是一座大寺，也是一座历史悠久的古庙。

江华岛到处都有战争的遗迹。有为了守住江华海峡而建成的德镇津，辛未洋扰时期（1871年）的激战地广城堡，辛未洋扰时期与美国远东舰队海军部队发生激战的草芝镇，曾经是江华关塞，防守江华海峡的要塞甲串台，以及高丽高宗时期为了对抗蒙古侵略建立的江华城等。

特别值得一提的是从高丽中期开始在此生产的“江华花纹席”，它的材料采用了其他地区不生产的纯白色莞草。“江华花纹席”作为观光特产深受人们喜爱。

江华岛还有个特产叫“芜菁”（一种萝卜）。因为土壤的关系，“芜菁”成为江华和开城的特产。用芜菁腌制的泡菜和萝卜块儿更是清爽酥脆。

此外只有在江华才能尝到的“干菜饭”，汤味鲜美的“蚬子汤”，江华特色小吃“大麦面汤”等都是首屈一指的美味。不仅在江华邑，在江华其他各处的小吃店都能尝到这些有名小吃。



第三节 江原道

1 江原道概况

江原道到处都有山、水、湖泊等自然奇景，有处处可见的文化财产和历史悠久的钟乳石洞窟，还有可以让人体味到国土分裂和骨肉相残苦痛的战争遗址。根据江原道的地形特点，本区可分为春川地区、雪岳地区、江陵太白地区、雉岳地区四个区域。现在正在全力开发各个地区的特长，并使各区域之间建立有机联系。

现在春川地区利用湖畔资源，向水上娱乐中心发展，力图建设成为邻近首尔的周末修养的好去处。这里主要的旅游资源有依岩湖、苏昂湖、九曲瀑布、灯仙瀑布、八峰山等。

雪岳地区以国立公园——雪岳山为中心，雪岳区不仅有海水浴场和滑雪场，还可以站在统一展望台上眺望北边的金刚山。

江陵、太白地区有海洋观光、大关岭及太白山脉观光区等资源。除庆浦、望尚等无污染海水浴场外，也有大关岭滑雪场和高尔夫球场等休闲设施。在这里还能看到五台山、小金刚、东海五陵溪谷等美景。此外，太白山以及宁越、旌善地区的景



点也是不能不提的重要观光资源。

雄岳地区的主要景点是雄岳山国立公园。现正计划将附近的九龙寺、艮岫国民观光地、金堡游园地、陕江游园地等地进行整合，建设成为一体的观光区。

2 主要观光景点

(1) 雪岳山

韩国第一奇景——雪岳山被称为韩国的金刚山。雪岳山高1708米，排在韩国汉拿山(1950米)和智异山(1915米)之后，是第三座高山。据《东国与地胜览》记载，之所以称为雪岳，是因为这里从八月十五之后就开始下雪，到夏至积雪才慢慢开始融化。

另据《增补文献备考》记载，因为山上常年积雪，岩石看上去就像雪一样白，故称为“雪岳”。雪岳山又称作雪山、雪峰山。

雪岳山是长白山脉峦峰中的一个，从最高峰大青峰和北边的马等岭、飞时岭，到西边的寒溪岭一线都被称作雪岳山脉。面向东的一侧叫做外雪岳，面向西的一侧是内雪岳。

据说由于在中生代花岗岩大规模向上隆起，在风化和河流侵蚀的作用下，形成今天雪岳山奇岩怪石的美丽景观。从山底到山顶的温差达12℃~13℃。因为是东海岸山脉的关系，地形性降水量较大。

雪岳山上有800多种植物，以阔叶林和常绿针叶林为主形

成了原始森林。

山里的动物有山羊、麝鹿、黑啄木鸟、半月黑熊等珍稀动物 500 余种。此外，在百潭寺溪谷百潭川内有冷水性珍稀鱼类热目鱼和柳鱼。雪岳山于 1965 年 11 月被指定为雪岳山天然保护区（天然纪念物 171 号），其内生存着的许多动植物。1982 年雪岳山被联合国教科文组织指定为世界生物圈保护区。

西侧的内雪岳深谷较多，水量丰富，这些都是雪岳地区有名的景致。沿着雪岳第一绝景百潭洞溪谷顺阶而上，就到了百潭寺，据说百潭寺因建在大青峰上的第一百个潭水处而得此名。

靠近东海的外雪岳上有千佛洞溪谷，溪谷中耸立的奇岩绝壁很是雄伟。外雪岳的入口处建有住宿娱乐休闲一体的大型观光停泊站。

从雪岳洞出发，经过神兴寺到达继祖庵，可以看到眼前有一摇晃巨岩。从这里再往前走，四周便是 950 米高的绝壁。

摇晃巨岩是游客来外雪岳观光时不可错过的一景。不管是 1 人或 10 人上前晃动，岩石摇晃的幅度都是一样的。

千佛洞溪谷里有卧仙台（神仙躺卧观景之意）、飞仙台（神仙飞天之意），以及位于世存峰中的金刚窟。

金刚窟位于高 800 米的陡峭岩石上。从飞仙台再往上就是真正的登山之路了。经由鬼面岩、五连瀑布、天堂瀑布等景点可直通大青峰。此外，外雪岳还有权金城、烽火台以及沿散策路一线的六潭瀑布、飞龙瀑布、土昂成瀑布等景观。

雪岳山上最具代表性的寺庙是内雪岳的百潭寺和外雪岳的神兴寺。



百潭寺最初建于新罗时期，之后遭到一次小火灾，在雪岳山内经过多次移址后，才迁到现在的位置。

神兴寺始建于新罗时期，后消失，在朝鲜时期得以重建。寺内有三层石塔（宝物443号）、丹青绝美的神兴寺极乐宝殿、神兴寺经板、青铜蒸器、石梯等文化遗产。

此外，雪岳山上还有凤顶庵、溪祖庵、五岁神童成佛的五岁庵，以及比丘女尼修行的内院庵和永生庵。

佛家称这座山为雪山、雪峰山、雪华山，这一名称让人联想到释迦牟尼修道的地方——雪山。据历史文献记载，雪岳山只要到了中秋便开始下雪，到夏天才融化，所以被称为雪岳。也有“岩石白如雪，谓之雪岳”之说。朝鲜宣祖时期，松江郑澈爬雪岳山凤顶庵时，被雷声霹雳所困，他说“这里不是雪岳而是霹雳，不是风景而是苦境，不是凤顶而是难顶”。这个小故事生动地反映了攀登雪岳山的艰险。

(2) 江陵端午祭

从农历五月初一的迎神祭开始，江陵端午祭正式拉开帷幕。自农历五月初一至代表阳气的数字“五”的双重叠日五月初五，活动共进行5天，但实际上自农历三月二十日的“谨酿神酒”起，相关祭祀活动就已经开始了。迎神祭是在国师女城隍庙内举行的，将供奉在此的大关岭国师城隍转移到即将举行典礼的南大川街。

迎神祭后，会举行灯火巡游。从这时开始到端午节的最后一天农历五月初六会举行官奴假面表演、荡秋千、农乐、摔跤、射箭、端午巫舞、时调演唱、民谣演唱等多种民俗活动及

多种多样的体育活动。

端午祭最后一天的活动最具特色，五月初六，会在大城隍庙后院举行烧祭。这时，要把为端午祭准备的所有东西烧毁，然后把供奉于大城隍庙的国师城隍送回大关岭国师城隍庙。这个仪式结束后，前后近50天的江陵端午祭才算接近尾声。

江陵端午祭师在漫长的历史过程中形成的最独特的艺术表现形式是端午巫舞和江陵官奴假面剧。官奴是朝鲜时期深受官衙压迫受尽折磨的奴婢，由于这种假面剧一句台词都没有，为无言剧，所以备受瞩目。

同样备受瞩目的还有巫女演绎的端午巫舞。端午巫舞是向鬼神祭祀时，众人在一起边唱边跳的舞蹈形式，它可以是江陵端午祭的核心。最佳观赏期是正式举办端午祭的农历五月初一到五月初五。



第四节 忠清北道

1 忠清北道概观

据《择里志》记载：“忠清道山川平坦、风景优美。因其离首尔很近，所以也是士大夫喜欢聚集的地方。在首尔生活了几代的家庭，都会在这里购置田地和房屋，以便世代生活。因为离首尔很近，在风俗习惯上与首尔差别不大，选好了安身之所，就可以尽情享受生活了。”不知是否基于这样的原因，忠清北道也被称为两班聚集地。

清州和忠州虽然都在忠清北道，但各自的文化背景却不尽相同。以清州为中心，形成了西原文化圈；以忠州为中心，形成了中原文化圈。

忠清道的风貌概括而言可以说是“清风明月”。

现在位于清州附近，从大青湖到俗离山、华阳洞、忠州湖、月岳山、小白山等，形成了循环观光带。

2 主要观光景点

(1) 俗离山法住寺

俗离山法住寺始建于新罗时期，是第四大历史名胜地，这里因拥有世界最大的青铜弥勒佛（本体25米）和八相殿五层木塔（国宝55号）而闻名海内外。此外还有双狮石灯（国宝5号）、石盐池（国宝64号）、被指定为宝物的四天王石灯（宝物15号）和摩崖如来倚像。俗离山有三无，即山上没有葛藤、白头翁花和蚊子，被称为神圣之山。

古刹中巍然耸立的巨大弥勒佛像和八相殿都是俗离山代表性的遗物。因为这里法理常在，所以寺庙被命名为“法住”，或者也可以看做是弥勒佛曾经住过的地方之意。

弥勒佛诞生于人类寿命延长至84 000岁之时，诞生在充满幸福和平的未来世界，他的佛像入住这里，这也将法住寺变成了实现这种理想世界的中心地。

另据传说，新罗真兴王十四年，义信祖师去西天取经，归来时用白色驴子驮着佛经，曾经在这里逗留并建起了寺庙，所以就有了“法住”这个名字。

法住寺内的八相殿（国宝55号）是韩国唯一一个5层木塔，高22.7米。因每面墙壁上画有2副佛像而被命名为“八相殿”。

八相殿内部中央以四个高柱为中心，上面用8幅画描述了释迦如来的一生，故称为八相图。

八相殿左边是高25米的青铜弥勒佛像，筑在8米高的石坛上，是用160吨青铜铸造的。



(2) 丹阳八景

“丹阳八景”是指以丹阳郡为中心，周边 12 公里以内的名胜地。

下仙岩位于南汉江上游丹阳以南 4 公里的丹城面大暂里，是深山幽谷中的第一处名胜。这里有一面被称作佛岩的 3 层宽阔岩石。朝鲜王朝时期，这里被称为仙岩。此后，就被称作下仙岩。春天的踟躅花和秋天的枫叶是这里的美景。

中仙岩位于丹阳以南 10 公里的丹城面佳山里，是三仙九曲的中心地。白岩石层层叠叠。传说双龙在这儿的溪谷中升天，所以这儿的溪谷被命名为双龙瀑布。

上仙岩位于丹阳南边 12 公里的佳山里，沿着中仙岩走出约 2 公里，就可以看到状如屏风的数万丈青色大石，它与磐石中间流动的溪流、瀑布形成了绝景。

龟潭峰位于丹阳以西 8 公里的丹城面长淮里，这里有被南汉江流水消蚀的奇岩怪石，形状如乌龟，所以被取名为龟峰。

玉笋峰位于丹阳以西 9 公里的长淮里。从很久以前开始，这里就被称作“小金刚”。其形状俨然如雨后竹笋，所以命名为玉笋峰。

岛潭三峰位于丹阳以北 12 公里的丹阳邑岛潭里。三座山峰耸立于南汉江之上。其中，南峰又叫妾峰或八峰，北峰又叫妻峰或儿峰。

石门位于丹阳以北 12 公里的岛潭三峰下游。南汉江边高数十尺的石柱左右相对而立，此上架着石桥，形似彩虹。

舍人岩位于丹阳以南 8 公里的大岗面舍人岩里，高耸在临江而立的德节山上。



第五节 忠清南道

1 忠清南道概观

忠清南道的地理位置相当于三国时期部族联盟中的马韩。

在这里可以看到灿烂的百济文化，扶余的定林寺址5层石塔、宫南池、百济王陵别墅、无量寺5层石塔、公州的松山里古坟、武灵王陵及其随葬品等。还有灌烛寺、恩津弥勒佛等也形成别具特色的观光区域。

大田广城市附近有闻名天下的落花岩、定林寺5层石塔和公山城，还有以武灵王陵为代表的百集文化遗迹以及儒城温泉和曾是百济首都的扶余及公州等。

现在，大田利用世界博览会的设施，构建并运营起科学公园。这里将进一步成为韩国科学发展的摇篮，同时这里还将被开放为科学教育基地，它和科技园区一样将发挥重大作用。

2 主要观光景点

(1) 百济文化节

每年10月中旬开始的百济文化节是韩国三大文化庆典之一。为了继承灿烂辉煌的百济文化，会在扶余和公州市轮流举办文化



节。每年的演出人员达1万多人，会准备70多项庆祝活动。

除百济大王祭外，还有追悼百济末期三位出色忠臣的三忠祭，纪念带领五千敢死队在同罗唐联军（新罗和唐朝）决战过程中牺牲的阶伯将军和八位忠臣的八忠祭；追悼百济光复军的忠魂祭，以及追悼当初为了守住贞节而跳下落花岩的3000宫女祭等代表性活动。

此外，还有丰富多彩的民俗活动，有时调歌唱大会、弓道大会、农乐庆演、百济王妃及公主选拔大会、壮士摔跤大会等活动。与当地居民共同参与的活动有歌唱比赛、戏剧演出等。

(2) 定林寺址五层石塔

定林寺址五层石塔于1962年被指定为韩国第9号国宝，也被称为百济五层石塔，它是灿烂的百济文化的证明，也因此名扬天下。

作为韩国有代表性的石塔样式，定林寺址塔总高8.33米，虽然很高大，但从远处看不会给人沉重感，走得越近越能感受到它的庄重与威严。给人这种感觉的原因是使用了不常见的大块屋盖石。屋盖石的尾部向两边展开，像是在张开双臂尽情跳舞，屋盖石尾部的转角部分稍微向上翘起。这种被称为“反转”的建筑手法代表了韩国建筑的曲线艺术，在其中可以尽情展现曲线美。

定林寺位于忠清南道扶余邑东南里一带，寺内还保存着和五层石塔一起被列入韩国宝物108号的高丽时期石佛坐像。

不管在新罗时期还是高丽时期，在旧百济地区的忠清道和全罗北道建立的多个塔，都和定林寺址五层石塔样式相似。定林寺址五层石塔因其造型独特，对忠清道和全罗北道的塔造形影响深远。



第六节 庆尚北道

1 庆尚北道概观

庆尚北道可分为北部的安东和东南部的庆州两个文化旅游区。

安东是朝鲜时期外戚长期居住的权势之地，因此在庆尚道北部形成了独特的安东文化圈。

安东河回地区有忠孝堂、养真堂，礼安地区有陶山书院等。在这里可以看到朝鲜时期士大夫的家风和生活风貌。除此之外还有喜方寺、浮石寺、小白山、绍修书院等。

在东海岸地区，从浦项向北到蔚真一带，有佛影溪谷、圣留窟、白庵德邱温泉等名胜。

庆州位于兄山江上游的盆地，是新罗的千年古都。作为韩国民族文化的摇篮之一，这里是巨大的活生生的历史博物馆。

庆州1968年末被指定为国立公园，1979年被联合国教科文组织（UNESCO）指定为世界10大遗迹之一。

虽然今天的庆州不过是小城市。但据历史记载，新罗时期这里有178 935户，房屋1 360间，是一座人口超过100万的大城市，规模大概是今天庆州的7倍。为了防止房屋被熏黑，据说当时的庆州人都是用橡木炭做饭，仅从这一点，也能大致



推测出当时的生活水平有多高。

庆州的文化财产中，国宝级文化遗产达 26 种，宝物级遗产有 55 种。此外，其他历史遗迹和地方文化财产共有 200 多种，将整个城市称作室外博物馆也不为过。

2 大邱概观

大邱是国际型轻纺工业城市。从很久以前开始，这里的苹果产量就很大。

从挖掘出土的无纹土器推测，大邱在公元前 1000 年前左右形成大规模的居住地，公元 1 世纪左右发展成为“达邱华”、“达邱伐”富足国家。757 年改名为大丘。1780 年又改名为大邱。进入朝鲜时代，随着工业的发展，大邱的地理位置日益凸显出其重要性，大邱自然成为了庆尚道的中心。1601 年在这里设立了庆尚监营，统辖庆尚地区的行政、产业、军事等。日本强占时期，主张自主自强的国民运动——“国债补偿运动”就是从大邱开始的。在 6·25 战争中，大邱是坚守国家的最后堡垒，为取得胜利起了很大作用。

大邱位于距离东海 80 公里的内陆，东北部和南部的一部分是山地，西边是较为宽阔的盆地，河流经由城市，由南向北流淌，同琴湖江汇合后，流入西边的洛东江。这里年均最高温和最低温相差较大，气候干燥，属于少雨地带，季节变化明显。

3 主要观光景点

(1) 安东河回村和假面舞

英国伊丽莎白女王二世访问韩国时，访问了韩国最具特色的安东河回村。只要提到安东，韩国人都会自然而然地想起“河回假面”。使安东这个小城名声鹊起的就是起源于此地的“河回面具舞”和在韩国历史悠久的假面舞之一——“河回别神假面剧”。

安东郡丰川面河回洞因“河回别神假面剧”和“河回假面”而著称，也是以“山太极”和“水太极”著称的民俗村，洛东江位于太极弯曲点的江边。这里曾是儒士们居住过的幽静村庄，至今依然保存着原貌。“河回别神假面剧”从很久以前便在河回村代代相传，也是韩国历史最悠久的假面剧。

在河回村，从士大夫到下层平民的130多处古代房屋，历经300~500年后，至今仍完好无损地保存着。这里曾是著名宰相柳成龙一家生活过的地方，是丰山柳氏家族世代生活的一座典型的同姓部落。

整个河回村已被指定为韩国重要的民俗资源。在这里，朝鲜中后期传统房舍的构造、岭南“名堂之地”的风水景观以及别神剧等一直传承到高丽时代的民间传统风貌和精神文化等都得以很好地保存。

传说用在别神假面剧上的假面是住在河回的许少爷受神灵启示后制作而成的。

很久以前，河回村住着一位姓许的少爷。许少爷梦中得到



村庄守护神的启示，要求他制作假面。于是他沐浴斋戒，锁上大门禁止外人出入，全力以赴投入工作。

在这个村庄有个思慕许少爷的姑娘。多日没见到许少爷的身影，心里很是焦急。夜晚，姑娘到许少爷家探望，发现大门已被封住。虽然她也知道这是为了防止外人出入而设置的，但思慕心切，还是推开大门走了进去。

夜已深，许少爷的房间里依然还亮着灯光。姑娘悄悄走到许少爷房门前，用手指在窗纸上捅开一个洞向里面窥视。被许少爷全身心投入制作假面的样子吸引，突然，姑娘失声发出“妈呀”的喊声。许少爷的姿态太让人迷恋了，她从没有见过许少爷这副专注的神态。

此时，许少爷正在制作魑魅假面的最后一个环节，听到人声，转头向房门看。就在这时，他口吐鲜血倒地而亡。原来是姑娘的行为惹恼了神灵，神灵降罪到了许少爷的身上。

在河回假面中，只有魑魅假面没有下巴。这是由于许少爷在还没有完成下巴这个环节就死去了的缘故。

河回假面一共有12个，失传了3个，只剩下9个。这9个被指定为国宝第121号。

河回村民为了祭奠许少爷，此后每年都会举行祭祀，保佑许少爷的灵魂安宁，也保佑村庄的平安。河回假面舞剧在韩国是历史最悠久的。每三年、五年或十年都会在正月初一到十五的时候举行假面舞剧的表演。

有句古话说“没看过别神假面剧的人，死后也不会去天堂”，所以只要有别神假面舞剧上演，不仅仅是河回村的人，其他地方的人也会赶过来观看。

假面舞剧的一大特点是毫无保留地讽刺和批评了那些徒有

其表、冠冕堂皇的两班、无知儒士及破了戒的花和尚。

此外，安东还有很多历史遗迹、文化遗产、寺庙和观光胜地。如陶山书院、道渊瀑布、安东民俗博物馆等。

(2) 佛国寺

佛国寺 1995 年被列为世界文化遗产，是第一号韩国历史遗迹，也是珍贵的世界文化遗产。建造佛国寺是出于新罗人要建设佛教的天国——佛国这一理想和意志而建造的。

坐落于庆州吐舍山的佛国寺原有大雄殿、极乐殿、无说殿、毗卢殿、观音殿、地藏殿、十王殿、雄镇殿、五百罗汉殿、香炉殿、千佛殿等木制建筑 2 000 多间。但在壬辰倭乱时期，这些建筑物都被烧毁了。

关于佛国寺的创建有很多说法。综合文献记录，可以推测在佛国寺内原曾有一定规模的寺庙，公元 751 年进行了大规模的增建。

现在寺内大致可以分为 3 个部分，分别以大雄殿、极乐殿和毗卢殿为中心，各领域都由阶梯、门、中心建筑物、环绕回廊 4 个基本要素构成。

借用佛教的解释，每个领域都代表着一个理想世界中的佛国形象。例如大雄殿代表释迦如来的世界；极乐殿代表阿弥陀佛的极乐世界；毗卢殿领域代表毗卢遮那佛的莲华藏世界。

三个部分的中心是大雄殿。青云桥、白云桥、紫霞门、大雄殿和无说殿成为南北方向的一条中轴线，周围建有回廊。大雄殿前有石灯和释迦塔（国宝第 21 号）、多宝塔（国宝第 20 号）。可以得知，这里是释迦牟尼说法，多宝如来作法事的地方。



殿前两侧对称建有梵影楼和左经楼，给人一种紧凑感。

进入大雄殿区域，映入眼帘的是被称为佛国寺思想和艺术精髓的释迦塔和多宝塔。两座塔虽然形式不同，但能与周围建筑很好地相互融合成为一体，共同构建了庄严的佛教领地。

释迦塔和多宝塔全称为释迦如来常住说法塔和多宝如来常住法事塔，象征着佛教理想在这里得以实现。

大雄殿后面的无说殿是讲经的地方。在新罗时期建造的基坛上，建有45根柱子，分为5排，每排9个，支撑着沉重的屋顶。走上无说殿后面的楼梯，就是有金字塔形屋顶的观音殿。观音殿里供奉着观世音菩萨。

走上青云桥、白云桥阶梯就可以看到紫霞门。紫霞门（国宝第23号）是通往释迦牟尼极乐世界大雄殿的通道。

毗卢殿内有统一新罗时期建造的毗卢遮那佛。毗卢遮那的意思是“放出光芒驱逐黑暗”，是诸佛当中地位最高的华严佛国的主人。他的右手表示佛界，左手表示众生界。

极乐殿内有金铜阿弥陀如来像（国宝第27号）采用金刚坐姿。佛像的左手放在膝盖上，右手搁在胸前，拇指和中指对捏，这是说法时的姿势。皮肤丰满而有弹性，衣服褶皱细腻，整体上给人一种仁善沉着之感。这座佛像和在国立庆州博物馆内栢栗寺的药师如来像都是新罗时期金铜佛像中最大的，也是最优秀的。而且它们都是8世纪中叶的作品。

（3）石窟庵

石窟庵1995年与佛国寺一同被列入世界文化遗产。

石窟庵是统一新罗时期文化和科学的象征，也是宗教情愫的结晶。

主室内有本尊佛释迦牟尼像、菩萨及众弟子像，前室有仁王像和四大天王像。虽说是石窟，但象征性地雕刻出了寺庙的建筑格式，形成了一个佛教的世界。石窟庵的十大弟子浮雕像在世界佛教美术史上也是极其罕见的大型雕像，其特色和艺术性均得到极高的评价。

经过多次补修，十大弟子像的放置顺序也许有所改变。但其姿态各不相同，有说法、修道、作佛事等不同姿势，雕像有很强的立体感。

所有弟子像都是光头，袈裟或垂到脚踝，或披在两肩，或露出右肩。头顶有圆形头冠，脚下有椭圆形大座。高高的鼻梁和深陷的眼睛，长相和西域人有些相似。最小的弟子像高2.08米，最大的弟子像高2.2米。

日本占领时期，石窟庵曾经历过三次复原建造，使石窟庵完全解体。重建后的石窟庵和原貌并不相同，所以我们无法知道原来的佛像位置和石窟庵的正确构造。

不仅如此，石窟庵克服了湿气多的自然障碍，走过了千年的风风雨雨，不得不说它本身就是科学技术的结晶，因为它本身有自行换气和调节湿度的功能。在修补过程中，用当时很时尚的混凝土将石窟庵围建了起来。而这样做反而导致石窟庵内部湿气充斥难以排除。之后，石窟庵历经1963年和1975年2次复原整修，重置了当初日本人误建的石窟布局，使其远离地下水道。为了防止石窟庵遭到进一步的损毁，如今已经用玻璃将石窟庵隔离起来了。石窟庵是新罗时期佛教艺术达到全盛时期的最高杰作。因其将建筑、水利、气象、宗教、艺术等有机地结合在了一起，所以更加令人瞩目。



(4) 郁陵岛

从浦项港或蔚真厚浦港乘坐快艇，只需两个半小时就可以到达郁陵岛，从浦项港到这里约有270公里的船程。

在郁陵岛，值得一提的观光项目是植物观光。从海岸植物到高山植物，共有575种之多。郁陵岛的罗里盆地是火山喷火口，是火山爆发后在冷却过程中形成的。另外用郁陵岛罗里盆地临近山地出产的野菜煎制的野菜饼及岛上盛产的墨斗鱼都得到观光旅游者的青睐。除此之外，最高峰圣人峰和郁陵岛海上环游也都是主要观光路线。



第七节 庆尚南道

1 庆尚南道概况

釜山拥有约 360 万人口，自 1876 年开辟为港口以来，就是文化物产的交流中心。1963 年从庆尚南道分离出来升级成为直辖市，发展成为韩国最大的、负责国际物流的港口城市。1995 年改为广域市，以“SMART 21”作为城市长期发展的目标。

釜山天然观光资源十分丰富。城市分为三个区域，每个区域都有各自承担的特定任务。东部为信息观光区，西部为生产物流区，中部为贸易金融区。

具有代表性的文化遗迹很多。有全国规模最大的梁山通度寺，以及釜山的梵鱼寺和陕川的海印寺等专门教授僧人的护法寺庙。

蔚山气候温暖，是天然的港口城市。正因为拥有港口，蔚山很早就成为走向东亚的韩国门户，如今也仍在不断拓展和世界各国的交流及合作关系。

蔚山广域市总面积为 1 057 平方公里，人口约 110 万，是韩国七大城市之一。太和江流域的肥沃土地和只有蔚山市相连



的蔚山港、温山港、方鱼津港，以及在这些港口的内部丘陵地带形成的约1900万坪的工业用地都成为工业城市蔚山发展的基础。

庆尚南道有如下几个特点。

第一，这里西北部依傍着小白山脉，东南被大海包围，所以方言色彩浓重，并且拥有属于自己的独特文化。

第二，洛东江流域人口稠密，农业发达，有宽广的盆地和冲积平原。

第三，自古以来这里的海上交通就很发达，它为工商业发展奠定了坚实的基础。

2 主要观光景点

(1) 釜山扎嘎其市场

釜山扎嘎其市场庆祝活动于每年10月中旬举行，釜山所有市民都会参与。在此期间生鱼片价钱非常便宜，可以让喜欢的人大饱口福。活动时间约为一周，会举行“龙王节”、“保护环境运动”、“竞猜重量”、“烹煮辣鱼汤比赛”、“焰火表演”、“丰渔祭”等有趣的活动。

扎嘎其市场正式形成是在朝鲜战争前后。全国各地的避难难民都集中到这里，为了维持生计开始摆起地摊，以此为契机逐渐形成了市场。正因为当时这些商人大部分都是战争中失去亲人的寡妇，所以形成了“扎嘎其大婶”的泼辣性格，直到现在这种气质也都还在。扎嘎其市场到处充满着活力，在这里做

生意的妇女们都被叫成“扎嘎其大婶”。看着这些扎嘎其大婶和客人讨价还价，可以让人感受到人生的活力。正因为如此，扎嘎其市场也成了港口城市釜山的代表。

在扎嘎其市场的生鱼片中心，鳗鱼生鱼片很有名。虽然扎嘎其市场除了出船抓鱼和卸鱼的男劳力外，几乎都是女人，但因为有泼辣的庆尚道大婶充满活力的嗓音和鱼在水里活蹦乱跳的声音，市场里总是充满了喧嚣。

在码头边的地摊上，可以吃到米肠或冷面之类的简单小吃。卖生鱼片的都在码头边的大厦里。大厦1层卖鲜鱼，到楼上可以吃到生鱼片。这里也有宰人的地方，所以在吃之前，一定要讲好价钱。

在市场的码头，可以乘坐被人们称为“海上出租车”的游艇。在交通拥挤的釜山，汽艇也是很方便的交通工具。

在附近的草梁洞形成草梁外国人商业街，俄罗斯商人和日本人经常来这里。

(2) 海云台

海云台可以同时享受温泉和海水浴，是韩国最大的海水浴场。据说在炎热的夏天，一天会有上百万名以上的海水浴游客来到长约2公里的白沙场，其中外国人就达到20万以上。因此从很久以前开始，海云台就被人们称为“朝鲜八景”之一，是首屈一指的名胜地。

传说新罗的博学大师崔致远在前往伽倻山时途经这里，在西南边的冬柏岛岩石上刻下自己的别号“海云”，故而流传下“海云台”这样一个名称。人们来到这里，听着海浪拍打岩石

的声音，心情自然就会放松下来；走在海边感受海风拂面，可以毫无烦恼地拍照留念。

海云台之旅还是个转换心情的好路线，这里有水准很高的宾馆和餐厅，在花园港湾宾馆前的尾浦船舶停靠码头，可以买到刚捕捞上来的新鲜生鱼片，还可以低价买到海鞘和海参，也因此吸引了众多的游客。



第八节 全罗北道

1 全罗北道概观

全罗北道人有一种敏锐的审美性，是这种审美性使他们在文化、艺术等方面发挥出了卓越的才能。这里比韩国其他任何一个地方都更具韩国气息，保留着更多的传统文化，是一个风味和美味兼备的地方。

品尝过用淳昌辣椒酱拌制的全州拌饭，可以真正体会到为什么将全罗道称作美味的原产地。

在全罗北道还有很多被全国认可、引以为豪的名品。例如全州的扇子，特别是合竹扇和窗纸，南原云峰の木器，长水的石锅，高昌郡的瓷器等都非常有名。

内藏山的枫叶节，南苑的镇浦艺术节，益山的马韩民俗节等都代表着当地的地方文化，包括很多传统风俗，因此众所周知。另外，“全州大私习”（农历五月初五）已成为传承韩国文化精髓的重要活动。



2 主要观光景点

(1) 全州

很久以前，全州就以儒生之城著称。这里的全州拌饭是最具全州特色的风味食品。东顾山因金达莱花著称。

附近观光旅游资源和度假休闲资源非常丰富，域内有庆基殿、内藏山、金山寺、弥勒寺址、华心温泉以及君山生鱼片料理等特色料理。

(2) 全州拌饭

全州拌饭是高官或两班家族都很喜欢的珍贵料理。它和平壤冷面、开城汤饭一起被称为朝鲜三大料理之一，是来全州的游客必尝的特色料理。

全州拌饭的材料有30多种，有豆芽、青脯凉粉、糯米辣椒酱、生牛肉片、芹菜、菠菜等。

用到的米也非常讲究，将鸡汤和里脊肉汤混合，用松枝或松球烧火，蒸后再将其冷却，最后再稍加点儿清水，米饭不硬不软刚刚好，而且米粒上还有光泽。

(3) 全州韩屋村

这里有韩屋生活体验馆、传统酒博物馆、东学革命纪念馆、工艺品展示馆、名品馆、传统文化中心、姜岩书艺馆，庆基殿丰南门等景点，这里也是全州有名物品的积聚地。



第九节 全罗南道

1 全罗南道概况

全罗南道和全罗北道被称作艺术和风味之乡。美丽的自然景观和温和的气候条件，造就了这里引以为荣的风土人情，同时这里也成了享受音乐和艺术的圣地。

在韩国传统歌谣中，以南道唱最为出色。南道唱也被称作“全罗之唱”。这里也孕育出活跃在韩国法律界、艺术界和文艺界的一大批人。

全罗南道山水秀丽，半岛及无数的小岛形成了“多岛海”。有智异山国立公园、闲丽海上国立公园、多岛海海上国立公园、内藏山国立公园、月初山国立公园等。还有无登山、曹溪山、头轮山等道立公园都是有名的游览胜地。

和庆尚道一样，全罗道也有很多寺庙，如华岩寺、松广寺、仙庵寺、大池寺、白羊寺等寺庙的本寺。燕谷寺、泉隐寺、泰安寺、兴国寺、双峰寺、宝林寺、云住寺、维摩寺等寺庙，虽然最近几年才开始被人们关注，但它们的历史都非常悠久。

特色制品有潭阳和灵岩的竹制工艺品、光阳的佩刀（银妆

刀)、宝成的花纹席、康津的青瓷、海南的玉石工艺品、罗州的小饭桌、木浦的陶瓷器等,不胜枚举,数不胜数。

著名的旅游路线主要集中在光州近郊的歌词文化圈和江镇、海南一带。

2 主要观光景点求

礼智异山

1967年12月29日智异山被指定为韩国第一个国立公园。总面积440.485平方公里,横跨全罗南道求礼郡、全罗北道南原市、庆尚南道山清郡、河东郡、咸阳郡等3个道5个郡。1997年1月18日全罗求礼郡一带(包括智异山五川和华庵寺等78.02平方公里)被确定为观光旅游特区。韩国规模最大的国立公园——智异山国立公园,和金刚山一起,被称为神山,代表了韩国的民族之魂,是一座神灵之山。

海拔1915米的千王峰为智异山主峰,和般若峰(1751米)、老姑坛(1506米)一起,被称为智异山的三大高峰。10多座1500米以上的大山峰,20多个1000米以上的山峰,以及80多个小山峰形成韩国南部地区最大的山岳群。

1989年12月,为了更好地保护智异山的自然资源,还将深元溪谷和避雅谷一带的20.2平方公里地区设定为自然生态保护区,对这一地区实施特别管理。智异山不仅有华庵寺、双界寺和连曲寺等17所寺庙,7件国宝,25件宝物等珍贵文化遗产,还完整保存了原始森林。



第十节 济州道

1 济州道概观

济州这个名称始于1294年。1946年从全罗南道脱离出来，升级为济州道。济州岛的总面积1845平方公里，约为首尔(625平方公里)的3倍。东西长73公里，南北长41公里，略呈椭圆状。济州岛大陆性和海洋性气候特征显著，年平均气温16℃，最冷的1月约为1℃，最热的夏季33.5℃，是韩国温差最小的地方。这里多风，雾天比较多。冬季温差较大，气候干燥。夏季潮湿多雨。

从石器时代开始，济州岛上就已经有原始居民在此生活了。那个时期的人都居住在洞窟或岩石隐蔽处，被发掘出的遗物有打制石器、骨角器物等。

据济州岛的开创神话——三姓神话所述，太古时期，“高乙那”、“良以那”、“夫乙那”三圣神走出汉拿山北侧的三姓穴，身穿兽皮衣，依靠打猎谋生，后来他们与碧浪国的三位公主相遇，并举行了婚礼。三位公主乘坐木船从碧浪国带来了牛马和五谷种子从事耕作，从此以后，这里就成了村庄。

据记载，早在三国时期，这里就已经有叫做“耽罗”的古

代国家了。在高丽时期，济洲岛遭到蒙古侵略，被间接或直接支配近 100 年。

济洲岛著名的短腿矮马就是从那时起开始大规模饲养的。据说当时蒙古军图谋侵略日本，在这里建起大规模马匹饲养场。

济洲岛的汉拿山是火山爆发后形的高山。岩浆熔岩流出后覆盖了整个济洲岛，水分和气体冷却后皸裂成龟壳状，而且这些裂纹一直延伸到地下。

所以即使在雨天，济洲岛的雨水也会很快渗入地下，不会出现积水的现象。流进地下的水在岸边海水的压力下，重新涌出地面。济洲岛的农田很少，也是因为雨水不能留在地面，而是渗入地下，留不住水分的缘故。济州市、西归浦市、城山浦、琴瑟浦等城市大部分都在海边，这是因为只有在海边才有饮用水的缘故。

因为济洲是座小岛，所以和其他地方比，形成了独具一格的特色文化。

济洲人生活在贫瘠的土地上，要不断的和大海做斗争，因此造就了他们坚韧不拔的生活态度。另外美丽的自然景观使得济洲人心地善良，热情好客。

有人说济洲是风多、石头多、女人多的地方，也有人说济洲是传说多、民谣多、神仙多的岛国。这里流传着很多像高个儿雪门台老奶奶的故事，这些传说既美丽又伤感。这里还盛产民谣，所以济洲岛又被叫做“民谣之岛”。以各种民间信仰为背景出现很多神灵，诸如保佑子孙繁荣的祖先神灵珠奶奶等。济洲人因为都要冒着生命危险出海干活，所以，为了保佑平



安，家里都供奉神灵。

2 主要观光景点

(1) 三姓穴

作为济州开国神话的发源地，高、夫、梁三种姓氏的后代们会在这里为祖先举行祭祀。

三姓穴是济州岛原住民的发源地。很久以前，高、夫、梁三圣神在此地出现，过着狩猎生活。在某一天，他们迎来了从碧浪国来的三位公主，三位公主带来了五谷肉畜，之后这里便逐步开始过起了农耕生活。

三姓穴排列呈“品”字形，在长久岁月的消磨中，只留下了模糊的痕迹。上穴为高、左穴为梁、右穴为夫。

(2) 龙头岩

龙头岩是火山爆发后，熔岩冷却形成的火山岩。

龙头岩和大海相连，在海水的冲蚀下，形成貌似龙状的奇岩。传说很久以前，汉拿山的龙偷了汉拿山神灵的玉珠逃跑了。愤怒的神灵用箭射中了龙，让龙的身子淹没在龙头岩的海水里，而头部朝向天空。

在龙头入口处，立有荷兰人哈迈尔的漂流纪念碑。如果要观光龙头岩，只要一个小时左右就能到达。

(3) 天地渊瀑布

与西归浦码头相连的河边有条观光路，沿着这条路直走就

能清晰地看到耸立的奇岩绝壁和晶莹的水柱，这就是天地渊瀑布。

在黑色熔岩之间，发出震耳欲聋的响声，垂直而下的雄壮水流让人为之震撼。瀑布周边的溪流是天然纪念物27号无秦长鱼的栖息地，周边溪谷生长着野生天然纪念物胆八树，而瀑布中央的水潭中则栖息着被指定为韩国天然纪念物第27号的花鳗鲡。

这里有可以充分休息的空间，在漫泻的月光下散步，是很多恋人的首选。

(4) 西归浦

西归浦市位于韩国最南端，是最能体现韩国南部风情的一个地方。传说“西归浦”这一名称与徐福有关。据说秦始皇为了长生，派徐福寻找长生不老药。徐福到达这里后最终还是未能找到，于是在瀑布岩壁上刻下“徐福过此”几个字后西行回去了。

西归浦的北侧以汉拿山为界与济州市相邻，南侧为中国东海。它与济州市一样，人口的大部分都集中在海岸一带。这里散布着很多主喷火口周围的侧火山。

西归浦的年平均气温和降水量都是韩国最高的，日温差小，四季温暖，年平均气温 17.8°C ，年内最高气温 35.6°C ，年最低气温 -3.3°C ，是韩国最温暖的气候。

(5) 城山日出峰

城山日出峰是济州岛最美的景观，很久前开始就被人们称



为瀛州第一景，这里也是韩国最令人神往的名胜地之一。

日出峰是耸立于济州岛的最东边，在济州岛大陆形成之前从地下突起形成的山峰。峰顶有99个小岩石峰，像座城堡一样，将喷火口围住，就像一座巨大的城堡，因此这里也被称作“城山”。东南侧及北侧与大海相连，形成了貌似冰壁的尖峰绝壁。只有西北边的山坡上覆盖着青草，与城山村相连。

沿着铺好的路走到178米高的峰顶，就可以看到密密麻麻的整个村庄。海岸线上涌来的海浪和城山蒲公英花的黄色相互映衬，真可谓是天下绝景。

3万多坪的绿色草原，深度足有100米的喷火口边的五百罗汉传说引人入胜。有99个锯齿的奇岩怪石围成一圈，让人联想起巨大的王冠。日出峰的绝景是看日出，清晨登上峰顶，透过朦胧的天空观赏太阳升起时的美景。

(6) 攀登汉拿山

在朝鲜半岛，海拔1950米的汉拿山排在长白山之后，为第二大高山。而在韩国，它是海拔最高的雄山。在“汉拿山”这个名称中，“汉”是指银河，而“拿”的意思是抬手去抓，即是指这座山很高，只要抬手就可以碰到银河。

汉拿山是火山爆发后形成的山，因此这里有其特殊的地形特征。主要景观有大小不一的喷火口，山山相连的枯木和丘陵、奇岩、洞窟、溪谷等。

1970年，这里被指定为国立公园，根据海拔高度的不同，垂直可分为亚热带、温带、寒带，因此有三带动植物在此栖息，这里也成为世界罕见的动植物宝库。

这里季节不同，景观各异。春天，整个丘陵开满高山杜鹃，汉拿山呈现一片红色景观，非常壮观。夏天，整个山谷被郁郁葱葱的绿荫覆盖，绿油油地连成一片。秋天，枫叶装点着满是奇岩的整个山坡。冬天，整个山谷覆盖着白雪，这里的雪花和冰川成为韩国最美的雪景。

汉拿山矗立在济州岛的中央，所以只要在岛上，从任何地方都可以观望到汉拿山。虽然汉拿山外观看起来不很陡峭，但攀登起来，就会感到山谷的险峻。要注意的是，随着海拔的升高，温差和气候的变化增大，登山时也要谨防雨雪的发生，带好登山防雨的装备。

参考文献

- 韩国文化观光部资料. 2007
- Wiki, Naver 百科辞典. 2008
- 首尔特别市文化观光资料. 2008
- 京畿道文化观光资料. 2008
- 江原道文化观光资料. 2008
- 忠清南道文化观光资料. 2008
- 忠清北道文化观光资料. 2008
- 庆尚南道文化观光资料. 2008
- 庆尚北道文化观光资料. 2008
- 全罗南道文化观光资料. 2008
- 全罗北道文化观光资料. 2008
- 济州道文化观光资料. 2008
- 韩国旅游发展局(观光公社)资料. 2009